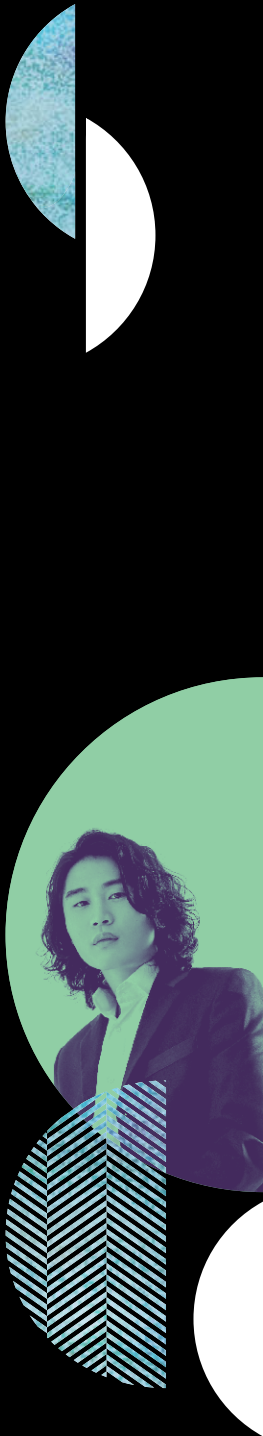


예술과 만남

02+03 2023 Vol.160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이달의 레퍼토리

제작극장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

연출과의 만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V>
지휘자 성시연

이달의 아티스트

성과는 음악에 대한 열정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프리뷰, 하나

2023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개막
더 폭넓게 움직이며 관객들을 찾아가는 경기도예술단

컬처로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적인 접근
비영리단체 스카이하이팜

무대

시간은 가고
시간은 또 온다.

어두운 무대 위 불이 켜지고
익숙한 춤사위가 공간을 메운다.

마음속 깊은
나의 간절한 기도
삶의 무대에서 단단히 서게 해주소서.
가볍게 날 듯 살아가게 해주소서.

삶

다시 시작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3년 2+3월호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서춘기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 허명현, 탁나희,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2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기획·디자인 방형식디자인
ISSN 2234-5949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카카오톡에서 만나보세요!



GGAC's Theme

- 08 오(oh),피니언
장르와 경계 사이,
세계를 읽는 다양한 창(窓)
- 12 이달의 레퍼토리
제작극장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
- 16 연출과의 만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V>
지휘자 성시연
- 20 이달의 아티스트
성과는 음악에 대한 열정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 24 내다보기
유희지에서 복합문화명소로, 공간의 재탄생

On Stage

- 28 프리뷰, 하나
2023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개막
더 폭넓게 움직이며 관객들을 찾아가는 경기도예술단
- 32 프리뷰, 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파격·역동의 무대, 수퍼스타가 돌아왔다
- 34 리뷰, 하나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뒤틀린 욕망 들춰낸 블랙코미디
- 36 리뷰, 둘
2022 <토크콘서트 : 랑데북>을 돌아보며
공연기획자의 노트

ONE Talk

-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우리 시대의 좋은 음악
- 44 트윙작
K팝의 영리한 클래식 활용법
- 46 컬처로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적인 접근
비영리단체 스카이하이팜
- 50 예술 알고리즘
생명공학이 뿌린 씨앗, 예술로 꽃 피우다
-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GGAC's Pick

- 58 GGAC NOW
경기아트센터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감사팀 문건한·무대기술팀 인수용
공연사업팀 정혜윤·경기도무용단 한지원
- 60 문화나눔·쉼터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찾아갑니다!
-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 64 CALENDAR
2월·3월 주요 공연 일정
- 66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장르와

GGAC's

어디까지가 미술이고 문학이며, 과학인가?
예술의 장르를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
각 분야의 예술가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고정관념을 넘어선 독창적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인다.

장르나 분야의 경계를 넘어 공존하는
이른바 통섭과 융합의 시대,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움직임들은 우리에게
예술이 무어나고 끝없이 질문을 던진다.

Theme

경계
사——이

장르와 경계 사이, 세계를 읽는 다양한 창(窓)

현대미술을 모던아트(Modern art)라고 한다.

여기서 모던(Modern)은 17세기 이후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지속돼온

서구 중심의 이성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역사를 가리킨다.

20세기 중엽부터 현재까지의 미술에는

모던에 포스트(Post)라는 접두사를 붙인다.

모더니즘의 사고체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2



1

1
Anne Imhof, Faust, 2017, German Pavilion,
57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2
Joseph Beuys, I Like America and America
Likes Me
© CAROLINE TISDALL, 1974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

포스트모던은 모던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포스트모던 역시 갈수록 심해지는 비결정성, 불확실성, 탈중심성, 다양성을 지닌 현재의 사회와 오늘의 미술을 소화하

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컨템포러리 아트(Contemporary art)'다. 우리말로 '동시대 미술'이라 한다.

동시대 미술은 언어, 이념, 풍속과 양식이 혼합되며 이전과 다른 흐름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의 미술이다.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하나의 인상파나 큐비즘 같은 '사조(-ism)'라면 '컨템포러리 아트', 즉 동시대 미술은 시간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당대 미술은 언제나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미술)'다.

그렇다면 동시대 미술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선 성격상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왕래, 이동을 통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영역확장, 새로운 가능성 모색이라는 정신적, 물리적, 관념적 여정과 맞물린 모든 상태를 지향한다. 형식적, 이론적 위계가 없다. 예술 도그마(dogma)*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는 물론 학제 간 장르 간 구분조차 배척한다.

이 중 규칙을 붕괴시키며 분계를 재편하는 '탈(탈)경계'는 동시대미술의 성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 도그마(dogma) : 종교, 학문, 예술 등에서의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을 뜻한다.



탈경계에

관한 탈경계란 경계를 벗어남이 아니라 '각각의 경계가 확실
두 관점 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직렬식이라기보다는
병렬식에 가깝다. 통제, 관리, 지배, 통치와 같은 개념들

과 끊임없이 대결하며 이전과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태도를 갖는다.

탈경계 내에선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병합 혹은 종속되지는 않은 채 끊임없이 서로 교차하거나 결합한다. 문학·음악·미술 등 문화와 문화 간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생성한다.

탈경계 현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탈경계다. 이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민족적인 프레임은 물론 국가주의, 통합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획일적 이념 외에도 제도·상품·자본·노동 등 '인간 삶'을 지배하고 포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탈경계로, 정신과 물질, 고급과 저급의 경계가 사라진다. 마치 사이버 공간처럼 시공간조차 경계두지 않는다. 작가와 관객의 평등화, 엘리트와 대중 간 간극 허물기, 상업성과 순수성 및 예술품과 일반 사물의 가치구분마저 파괴한다.

3 Rirkrit Tiravanija, Untitled(morgen ist die frage), 2020
©Marjorie Brunet Plaza

4 Kassel Documenta15, 2022
©홍경한

'혼합 감각적'

예술을 장르와 경계 사이를 오가는 작가들의 작품은 대개 '시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에겐 수
창조하는 작가들 백 년의 역사를 지닌 회화, 사진, 조각의 전통적 표현방식은 진부하다. 설치, 영상은 물론
오브제·미디어·건축·음악·퍼포먼스·무용·연극 등, 수용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혼
합 감각적인' 예술을 창조한다.

이들은 과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장소에 대상을 공존, 혼용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메시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그
러면서도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그들이 곧 예술가, 예술작품의 완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민
주적이다.

대표적인 작가는 많다. 물리적 결과물과 비물리적 행위의 경계를 무기력하게 만든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추상회화, 회화와
음악의 만남을 통해 탈경계를 보여준 파울 클레(Paul Klee),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으로 일상과 예술의 간극마저 무너뜨린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등은 고전적 사례에 속한다.

여기엔 비디오아트 선구자인 백남준도 포함된다. 그는 1963년 이후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등 당시 미술 조형재료로는 잘 사
용하지 않던 매체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예술과 기술, 예술과 대중문화,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이라는 구분을 무력화했다.

이밖에 팝과 아방가르드를 횡단하는 미래주의적 음악으로 패션 브랜드와 예술계가 주목하는 전자음악가 씨피카(CIFIKA)를 포함해
영화와 미술을 중형무진 누비는 태국의 아피차트웅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마저 작품의 일부가 되
도록 하는 다면적 프로덕션의 안네 임호프(Anne Imhof) 등도 장르와 경계를 오가는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힌다.

특히 '몰입형 예술(Immersive art)'을 이끌고 있는 팀랩(teamLab)이나, 1999년 영국의 권위 있는 미술상인 터너상을 수상한 영화 '헝거

(2008)' '위도우즈(2018)'의 미디어 아티스트 스티브 매킨(Steve McQueen),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관객 간의 대화를 매개함
으로써 전시 관행에 대해 묻는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역시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

장르가 무의미한 탈경계의 다양한 예는 전통적 형식을 허물고 있다. 뮤지컬과 팝뮤직을 섞은 팝페라(popera)와 무용과 연극
의 경계를 없앤 독일 안무가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탄츠테아터(tanztheater), 그리고 하위문화로 인식되어 온 펑크 문화의 야
성적인 측면을 고유한 공간에 화려하게 접목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펑크 카오스 투 쿠투르
(Punk Chaos to Couture)' 등이 그 한 예이다.

탈장르 및 탈경계를 가장 리얼하게 드러낸 최근 사례로는 지난 9월 막을 내린 '카셀 도큐멘타15(Kassel Documenta15)'가 있다. 인
도네시아어로 공동 쌀 '헛간'을 의미하는 '룸bung(lumbung)'을 주제로 한 올해 카셀도큐멘타에선 공동체에 의한 합작 생산과 균
등한 분배, 참여자들 간의 수평 및 상호 작용을 통한 '선(경계)' 없는 전시방법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현대

문화예술에서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위반, 초월, 탈주 등의 개념
탈경계의 의미 을 공존과 같은 또 다른 개념으로 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하나의 작품이 보여지는 방식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또 다른 예술장르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과, 지리적·역사적·지형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선 넘기, 이동하기를 통해 새로운 언어를 제시해 왔다는 것도 공통분모다.

그렇다면 탈경계가 현대문화예술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
잡다단한 시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각기 다른 요
소들의 공존을 특정한 무대로 불러들여 관계를 맺고, 그 차이를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번역'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탈경계가 가지는 의미 중 하나다.

그러나 탈경계가 생성한 반작용이 이전과 전혀 다른 미적 경험을 유도하고 새로운 소
통방식을 꿈꾼 채 관객들에게 세계를 읽는 다양한 창(窓)이 되어준다는 점이야말로 장
르와 경계 사이에 놓인 동시대 미술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글 — 홍경한

미술평론가이자 전시기획자다. 미술전문지 월간 <미술
세계>와 <퍼블릭아트>, <경향아티클> 편집장을 지냈으
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대림미술관 사외이사, 국
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향신
문>과 <메트로신문> 필진으로 있다.



제작극장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

국내 제작극장의 현주소와 주요 과제

‘제작’을 한다는 것의 요체는 새로운 작품을 출산한다는 것이다. 제작극장은 작품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극장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은 프로듀싱 시어터(Producing theatre)라고 한다. 좋은 프로듀싱 시어터는 공연을 제작하는 역량, 다시 말해 작품을 놓고, 그 작품을 기르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간 시즌을 극장이 놓고, 기른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해당 작품과 관객이 깊게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극장의 역사를 써간다.

한국의 공공극장이 제작극장의 면모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태어나게 하는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대체로 전국의 문예회관들은 스스로 작품을 출산할 힘이 약하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공공극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해당 작품들은 흔히 말하는 대관을 통해 다른 곳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이곳에 와서 잠깐 관객을 만나고 가는 것이다. 흔히 프리젠틱 시어터(Presenting theatre)는 공연을 출산하는 역량은 없고, 기획과 운영 인력을 중심으로 유통과 향유에 집중한다.



제작극장은 왜 필요할까?

프리젠틱 시어터도 장점이 많다. 이미 잘 성장하여 관객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우리 극장에 초청, 혹은 공동기획을 통해 소개하는 것 만으로도 좋은 극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프리젠틱 시어터가 되기도 쉽지 않다. 공연은 영상과 달리 복제가 되지 않아, 같은 공연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장소에서 상연할 수 없다. 좋은 작품은 같은 날짜에 하나의 극장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극장에 좋은 작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극장 입장에서 ‘내가 낳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필요한 시즌에 해당 작품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작품을 다른 지역과 해외에 투어를 보낼 수도 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부모도 성장하며 남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직접 제작한 좋은 작품은 극장의 고유한 브랜딩과 지속가능함을 위한 보물이 되기도 한다.

개별 극장의 입장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제작극장은 왜 필요할까? 2023년 문화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비전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국문화의 차세대 주자, 예술>로 설정하고 기초예술 지원의 창의적 성과를 한국예술(K-Arts)로 육성한다고 하였다. 극장은 기초예술 분야에서 ‘창작의 집’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모든 극장이 100% 제작극장이 될 필요는 없다. 프리젠틱 시어터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극장의 특성에 맞게 작품의 출산과 성장을 경험해갈 수 있다. 창작의 경험이 쌓일수록 지역과 개인의 창의력도 함께 올라가면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작품이 쌓여갈수록 문화매력국가의 다양성과 깊이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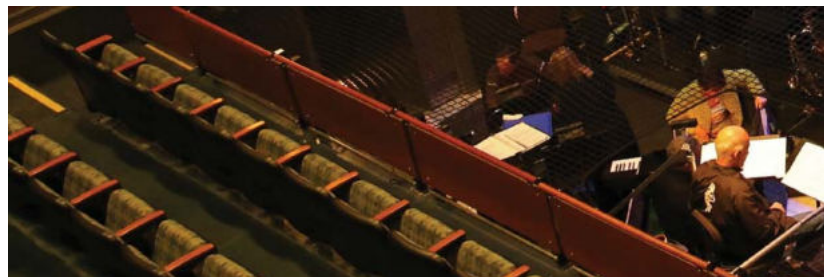
극장은 기초예술 분야에서 ‘창작의 집’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모든 극장이 100% 제작극장이 될 필요는 없다. 프리젠틱 시어터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극장의 특성에 맞게 작품의 출산과 성장을 경험해갈 수 있다.



◆ — 좋은 제작극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 ◆

작품을 출산하는 극장을 제작극장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극장에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등 전속단체를 두는 경우와 전속단체 없이 제작 프로덕션을 건건이 꾸려서 운영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을 보유한 국립극장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 국립극단과 국립정동극장이 있다. 이 두 조직은 시즌 단원제와 정동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속단체 비중을 작게 가져가는 대표적인 제작극장이다. 광역단 위 세종문화회관, 경기아트센터 등은 경우 전속단체를 통한 일부 제작극장 모델과 프리젠틱 시어터를 혼합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두산아트센터와 우란문화재단 등이 전속단체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제작극장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전속단체가 있다고, 제작극장이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전속단체가 있다고, 작품의 출산을 제대로 하는 극장일까? 지난해 말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해, 대구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총사업비의 90%가 인건비이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예술단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있었다. 예술단의 단원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작비 비중이 작다는 의미다. 해군이나 공군을 뽑아놓고, 군함이나 전투기에 투자가 없다면 강한 국방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전속단체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예산을 균형 있게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극장과 함께 전속단체를 뽑아놓고, 예술단이 좋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다. 총사업비에서 90%가 단원 인건비라면,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의 인건비와 무대, 음악, 의상, 홍보마케팅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1년에 몇 작품 하지 않으면서, 예술단이 놀고 있다는 비난이 악순환 된다. 일반적인 공연제작 예산 비율을 보았을 때, 전속단원 인건비와 작품제작비의 비중이 5:5에서 최소 7:3까지는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연간 전속단체가 왕성하게 새로운 작품을 출산하고, 좋은 레퍼토리를 성장시키고, 관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케팅이 병행될 수 있다.



◆ — 좋은 제작극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람 — ◆

전속단체가 있든 없든, 제작극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듀서 혹은 기획자가 제작극장에는 필요하다. 해당 극장에 있는 프로듀서 혹은 기획자의 역량은 제작극장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자가 되기도 한다. 개별 예술인들은 자신이 맡은 예술적 역할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관객을 기반으로 시장을 읽고, 우리 극장과 함께하면 좋을 다양한 예술가를 찾아 협업을 끌어내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극장의 경우 극장을 시설관리로 인식하는 제너럴리스트 성향이 강한 행정인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좋은 기획자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가는 좋은 제작극장으로 가는 시작과 끝이지만, 그 과정을 풀어내는 역할은 예술가를 깊게 이해하는 기획자의 몫이다. 행정은 좋은 예술가와 기획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력할 수 있으면 된다.

국립정동극장에서 제법 긴 시간을 보냈다. 오랜 시간 연습실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작품을 품었다가 관객들을 모셔놓고, 첫 공연의 현장에서 가슴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던 기억들이 난다. 작품이 관객과 만나 살아 숨 쉴 때, 창조된 하나의 작품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제작극장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제작극장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

작품이 관객과 만나 살아 숨 쉴 때, 창조된 하나의 작품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제작극장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제작극장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글 — 장석류

예술경영 행정분야 연구자, 국립인천대 문화대학원 교수. 국립정동극장에서 14년간 근무하였고, 동시대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분야의 사람, 조직, 제도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문화와 기획자 양성, 예술인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을 두고, 조직과 사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 얻어요

오를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성시연

성
시
연
Shi-Yeon Sung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V> 공연이 오는 3월 22일, 23일 양일간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각각 열린다.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허바우 무대에 올라 주목받고,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영국 로열 필, 미국 보스턴 심포니 등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는 지휘자 성시연이 오랜만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와 함께 연주하게 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세계무대를 누비는 지휘자 성시연

6년 만에 경기필과 다시 만나다

“안녕하세요. 지휘자 성시연입니다. 오랜만에 경기필과 공연하게 되어 기쁘고 설렙니다.”

지휘자 성시연은 일찍이 세계 지휘 무대에서 주목받아 왔다. 2006년 게오르그 솔티 콩쿠르, 2007년 구스타프 말러 콩쿠르에서 차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7년 미국 보스턴 심포니 부지휘자, 2009년에는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초빙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및 예술단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해 왔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로열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2021년),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2022년)의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되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 오를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만큼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일해온 성시연 지휘자. 그중에서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가 부지휘자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갔을 당시 첫 연주로 라벨의 <다프네와 클로에> 전곡을 연주했는데, 시즌 오픈하는 첫 리허설에 너무나 완벽하게 연주했어요.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첫 음부터 완벽하게 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 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유학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베를린에서 공연들을 많이 접했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직접 지휘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지휘를 하게끔 많은 영감을 준 오케스트라다.

성시연 지휘자는 오는 3월, 경기필과 함께 <마스터피스 시리즈V> 공연을 앞두고 있다. 경기필과는 햇수로 6년 만에 함께하는 공연이다. 그동안 서로가 성장했기에 어떤 소리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이번 만남이 설레고 기대된다고 한다.

“경기필을 그만둘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식물을 키울 때 뿌리와 잎이 자랄 때마다 화분을 갈아주잖 아요. 우리도 당시에 아주 좋은 화분과 식물로 만났고, 자양분이 다하고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 때에 또 다른 화분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요.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그 역량을 다른 곳에서 발휘할 수 있게 좋은 이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더 큰 에너지 뿜는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성시연 지휘자. 그는 스스로를 말러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지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특이한 생각을 음악에 대입시키고 비현실적인 소리로 끌어내는 작곡가 말러의 음악에 매료되었고, 그의 음악은 지휘자 성시연의 삶에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성시연 지휘자가 이번 <마스터피스 시리즈V>에서 연주할 말러 교향곡 6번은 '비극적'이라는 표제와 같이 참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찬사가 이어지는 작품이다.

“이 곡은 행진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행진곡으로 끝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악적 아이디어나 방향들이 각기 다른 색채를 띠는데, 그것이 혼합될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혼합되어 한 색깔을 나타내는 곡이에요. 이 곡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전개될지 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에 더 큰 에너지를 뿜어내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국내 무대에서 말러 교향곡 6번을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비극적'이라는 제목의 말러 교향곡 6번을 무대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번 공연에 연주하는 경기필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순수함과 분출되는 에너지 등 경기필이 가진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말러를 표현하기에 좋은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주 중에 나무 망치로 큰 타격을 두 번을 주는 데요. 망치로 강하게 타격을 주는 것처럼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는 봄에 이 곡을 통해 색다름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러 교향곡 6번은 2악장과 3악장의 배치 문제가 이슈가 되어 왔다. 스케르초(템포가 빠른)와 안단테(느린) 악장이 있는데, 말러가 이 곡을 초연할 때는 2악장에 빠른 악장을 붙여놓고 3악장에 느린 악장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여러 코멘트에 따라 2악장에 느린 악장, 3악장에 스케르초의 순서로 연주되었다. 이 곡은 이후로도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성시연 지휘자의 말러 교향곡 6번은 어떻게 진행될까.

“저는 비극적인 행진곡이 비극적인 스케르초로 시니컬하게 이어지고 그다음 모든 것에 희망을 놓은 듯한 느린 악장이 이어진 후 피날레로 가는 연결구가 전체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 곡을 1시간 20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1악장부터 4악장까지 한 인생의 파노라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과 비슷하다

지치지 않는 예술적 영감, 음악적 영감을 삶 자체에서 얻는다는 성시연 지휘자. 도전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지고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길을 개척한 데서 에너지와 영감을 얻는다고.

“저는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더욱 도전 정신이 일어나요. 나를 채찍질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서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때 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설령 그 답이 100퍼센트 맞다고 할 수 없어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안 하고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 할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단련해 왔다. 나아가 그는 음악 하는 것을 운동과 비슷하다고 보고, '스포츠 정신'에 비유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스포츠 정신이잖아요. 음악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음악 하는 것과 스포츠 정신의 비슷한 점 같아요.”
성시연 지휘자는 오는 3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함께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 말러 교향곡 6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탐구 정신과 갈급하는 마음으로 경기필과 함께 공연에 임하려고 합니다. 말러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희노애락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깊이 있는 음악을 접하러 공연을 찾아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너무나 영광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올해 예정돼 있는 연주들을 소화하며 오클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탐구 정신과 갈급하는 마음으로 경기필과 함께 공연에 임하려고 합니다. 말러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희노애락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깊이 있는 음악을 접하러 공연을 찾아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너무나 영광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는
음악에 대한 열정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글 편집부
사진 협조 CREDIA MUSIC & ARTISTS

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인 제12회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마그누스 린드 베르크의 위촉곡으로 최고 연주상(해석상)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국내외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그가 오는 3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협연을 앞두고 있다. K-클래식의 대표 아티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를 만나본다.

7년 만에 도전한 국제 콩쿠르, 우승

그는 압도적이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2022년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과 함께 현대작품 최고해석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심사위원장 사카리 오라모는 그에 대해 “양인모는 압도적이었다”며 “그의 연주는 전혀 과도함이 없이 노래하듯 매끄럽고 자연스럽다”라고 호평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2015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였으며, 2014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1위, 예후디 메뉴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시니어부 문 2위를 수상한 바 있다.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우승 후 카네기홀 와일 홀 데뷔 무대를 가진 그는 보스턴 심포니홀, 라비니아 뮤직 페스티벌,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 등 미국 주요 무대에 진출하여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양인모는 파비오 루이지, 네메 예르비, 정명훈 등 세계적인 명성의 지휘자들과 함께 프랑스 국립 교향악단,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취리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연주 통해 전달하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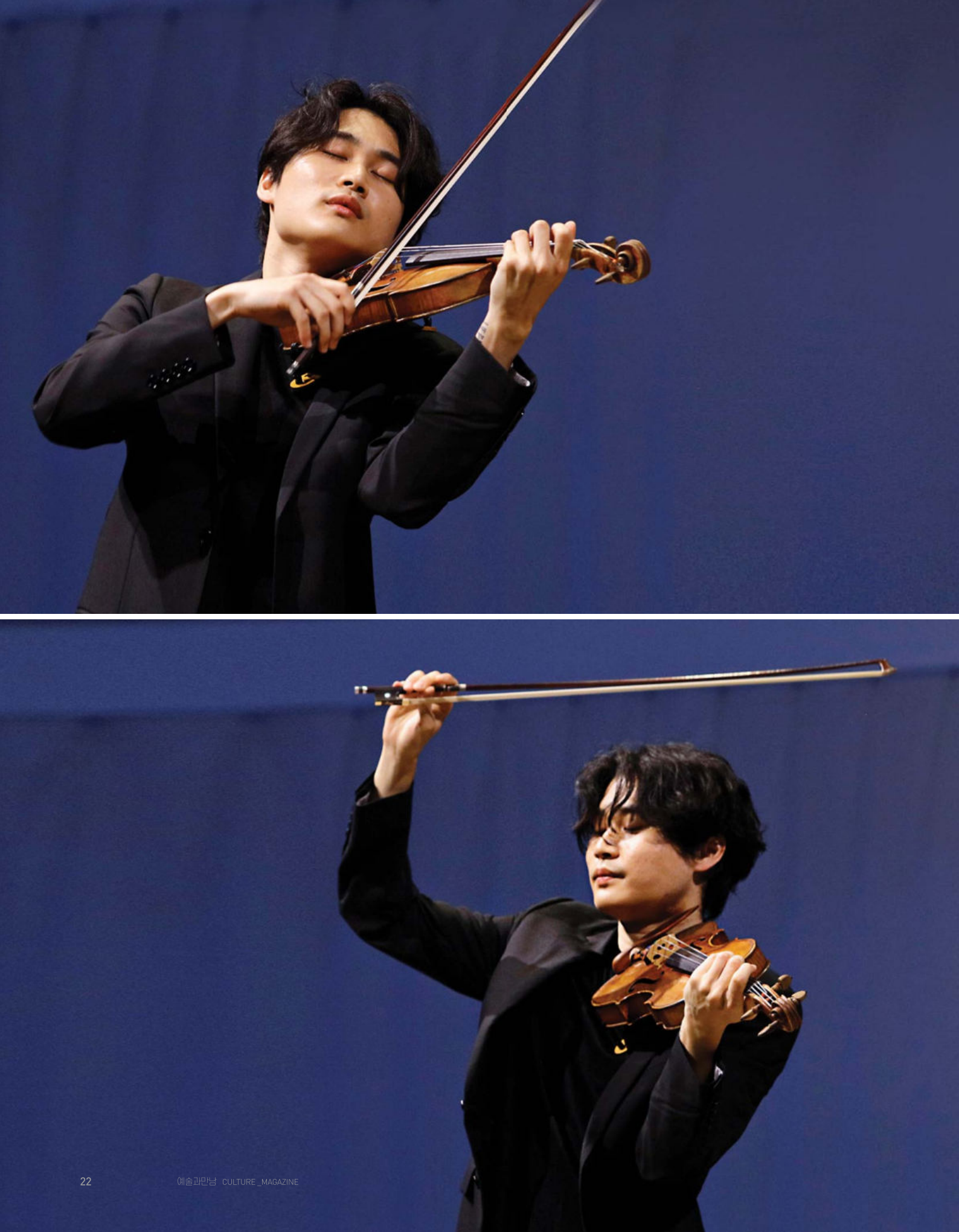
최근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는 지난해 시벨리우스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갖춘 라이프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루에 4시간 가량 연습하고, 두 번 정도 산책하며, 녹차를 자주 마십니다. 2월에 한스 아이슬러 대학에서 졸업 연주를 마치면 3월부터 크론베르크 아카데미를 다닐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연주가 많아졌어요. 연습이 더 즐겁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큼니다.”

그의 연주는 어려운 테크닉의 곡도 편안하고 섬세하게 전달한다는 점이 특징이자 매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연주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법이 어떻든, 사용하는 에디션이 무엇이든 하나의 명확한 아이디어를 장착하고 연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취향을 초월하는 가치 있는 연주란 그런 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인모
In-mo Yang



그는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쥔 후 오랜만에 참가한 2022년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또 한번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었다. 7년 만에 콩쿠르에 참가한 느낌은 어땠을까?

“7년 전에 가장 막내였는데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는 어느새 노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부모와 동행한 참가자들, 콩쿠르 경험이 처음인 참가자들을 보며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계속 어려워지는 클래식 시장 안에서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것이 7년 전과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죠. 결국 최대한 즐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근 한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K-클래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인재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콩쿠르 결과만이 곧 음악적 성과로 인식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그는 콩쿠르 우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성과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연주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우승을 함으로써 커리어가 보장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트로피를 쥐어도 치열한 시장과 관객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지나간 달력을 찢는 것만 같 쉽습니다. 진지한 연주자라면 콩쿠르를 통해 힘겹게 얻은 기회를 꾸준히 가꾸어나갈 고민을 할 것이고, 그때부터 성과라는 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의 부산물로써 자신을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곡일까’

먼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탕 되어야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는 한국, 미국을 거쳐 현재는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클래식 연주자 그리고 학생으로서 다양한 환경을 접하며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이 많습니다. 음악에 관심있는 열렬한 후원자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독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소양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음악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젊다는 것이죠. 세계 어디를 가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객석은 없습니다. 이 특별한 에너지가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안목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새로운 클래식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그가 협연이나 독주회를 준비할 때는 특히 무게를 두는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아티스트의 기준이 ‘세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세상에 대한 이해는 ‘왜 지금 이 곡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곡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곡이 어떤 콘텍스트의 일부고 그것이 현재와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캐치하고 세련되게 발표하는 것이 이 시대 젊은 아티스트들이 더 개발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3월, 성시연 지휘자 그리고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성시연 지휘자와의 좋은 호흡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공연의 감상포인트를 귀띔했다.

“이 곡은 바르톡이 슈테피 가이어라는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바르톡은 끝내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지만 이 곡을 통해 작곡가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상징하는 트리스탄 코드가 이 곡에서 몇 번 나오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는 클래식 연주뿐만 아니라 현대음악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해 10월, 부산시향과 <진은숙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협연을 선보였다. “21세기에 사는 음악가는 21세기 곡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은숙 작곡가의 음악을 통해 지금 세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대 음악이 젊은 연주자들에 의하여 더 적극적으로 연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도 주어진 무대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는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 앞으로 그가 음악과 연주를 통해 세상에 건넬 이야기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젊은 아티스트가 바라보고 그리는 세상이 궁금해진다. ◀

유희지에서 복합문화명소로, 공간의 재탄생

‘공간(空間)’, 말 그대로 빈 곳 혹은 쓰지 아니하는 빈 칸을 뜻하는 공간은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의미와 기능이 달라진다. 최근 아무 것도 없던 캔버스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장소로 새롭게 탄생한 공간들이 늘고 있다.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새로운 쓰임과 의미를 얻은 경기도의 이색명소들을 소개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수원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폐수처리장 고색뉴지엄

‘고색뉴지엄’은 수원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 시설이 박물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이다. 인근 공장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첨단산업 업종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폐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 10여 년간 버려져 있던 시설은 2017년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인 전시실과 교육실, ‘다목적 어린이 공간’인 어린이집으로 리뉴얼하며 새로운 방식의 박물관이라는 뜻의 ‘뉴지엄(NEW+MUSEUM=NEWSEUM)’이 되었다.

수원시 산업역사의 연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 서재,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실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다.

고색뉴지엄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폐수처리시설을 최대한 보존하여 문화시설로 재생시켰다는 것이다. 열린 서재가 있는 로비 공간에는 약품을 보관했던 약품탱크가 남아있고, 전시실에는 폐수 처리를 위한 기계들이 존치되어 있다.

급격한 산업 발달로 쓰임을 잃었던 유희산업시설이 문화공간으로 재생된 공간이다.

산업 및 공간의 역사를 간직한 유희재생공간 고색뉴지엄에서는 미술, 국악공연 등의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다양한 예술인들의 전시회, 시민들을 위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의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파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캠프그리브스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5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해오다, 미2사단 506연대를 마지막으로 2004년 미군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이다.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업 공모에 당선되면서 캠프그리브스는 큰 변화를 맞았다. 시설 내 10개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탄약고, 퀀셋막사, 조적도 건물, 하사관숙소, 불링장 등의 다양한 장소를 유효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알리기 위해 전시들을 기획, 진행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변모하였고 시각 예술가들은 이러한 구조와 특성을 살린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된 전시관이 되는 퀀셋막사(Quonset Huts)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미군 건축 양식이 축적된 시설로서 휴전협정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조립과 철거가 쉬운 특징이 있다. 이 밖에도 무기실과 중대사무실, 독신 하사관 숙소(BEQ)는

기획 전시관으로, 탄약고는 미디어아트 및 설치작품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파주 곤돌라 탑승객 대상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갤러리그리브스 전시관(前 불링장)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2022년 11월 리뉴얼되어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다. 캠프그리브스는 전쟁과 분단의 장소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을 예술에 담아 관객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통선 내의 유일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유스호스텔을 관리 운영하며, 캠프그리브스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

소각장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부천아트방커 B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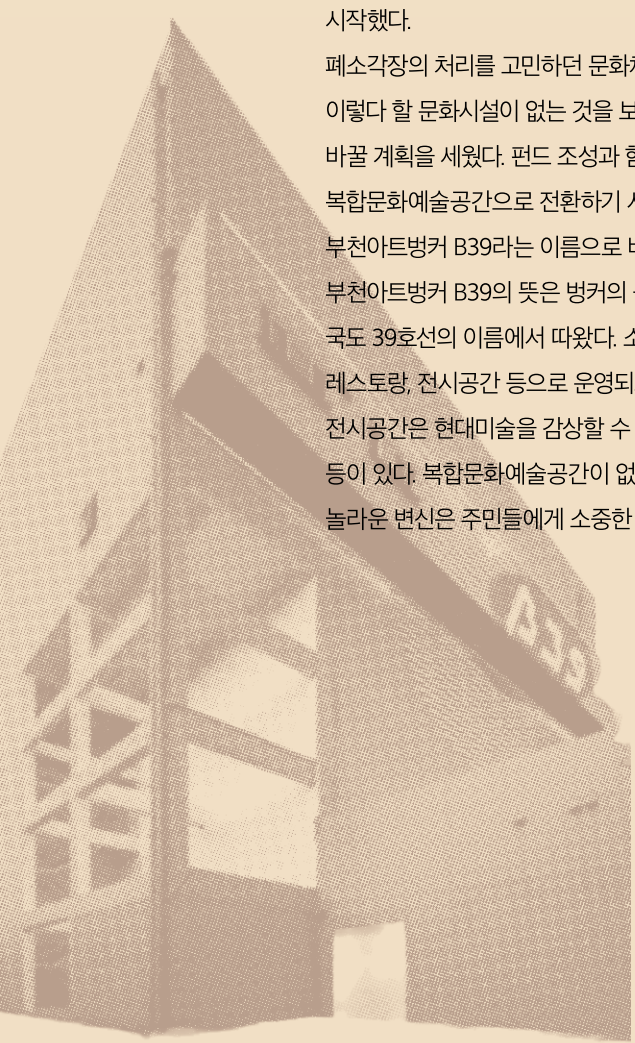
1990년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 개발과 함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근 삼정동에 소각장이 설치됐다. 1995년 가동을 시작한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200t의 쓰레기를 소각했는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수많은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완전중단 후 폐소각장으로 남았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남았고, 인근 지역은 슬럼화되기 시작했다.

폐소각장의 처리를 고민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근에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는 것을 보고,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펀드 조성과 함께 2014년부터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부천아트방커 B39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부천아트방커 B39의 뜻은 방커의 높이 39m와 이곳을 지나는 국도 39호선의 이름에서 따왔다. 소각장이라는 테마와 함께 레스토랑, 전시공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시공간은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1층 로비와 기획전시실 등이 있다.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없었던 부천 북부. 폐소각장의 놀라운 변신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를 안겨줬다.



프리뷰, 하나

2023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개막
더 폭넓게 움직이며 관객들을 찾아가는 경기도예술단

프리뷰, 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파격·역동의 무대, 수퍼스타가 돌아왔다

리뷰, 하나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뒤틀린 욕망 들춰낸 블랙코미디

리뷰, 둘

2022 <토크콘서트 : 랑데북>을 돌아보며
공연기획자의 노트

Genre

Boundary

On Stage

*무대를 채우는 공연, 공연의 감동을 전하는 시선

2023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개막

더 폭넓게 움직이며
관객들을 찾아가는
경기도예술단

GGAC REPERTORY SEASO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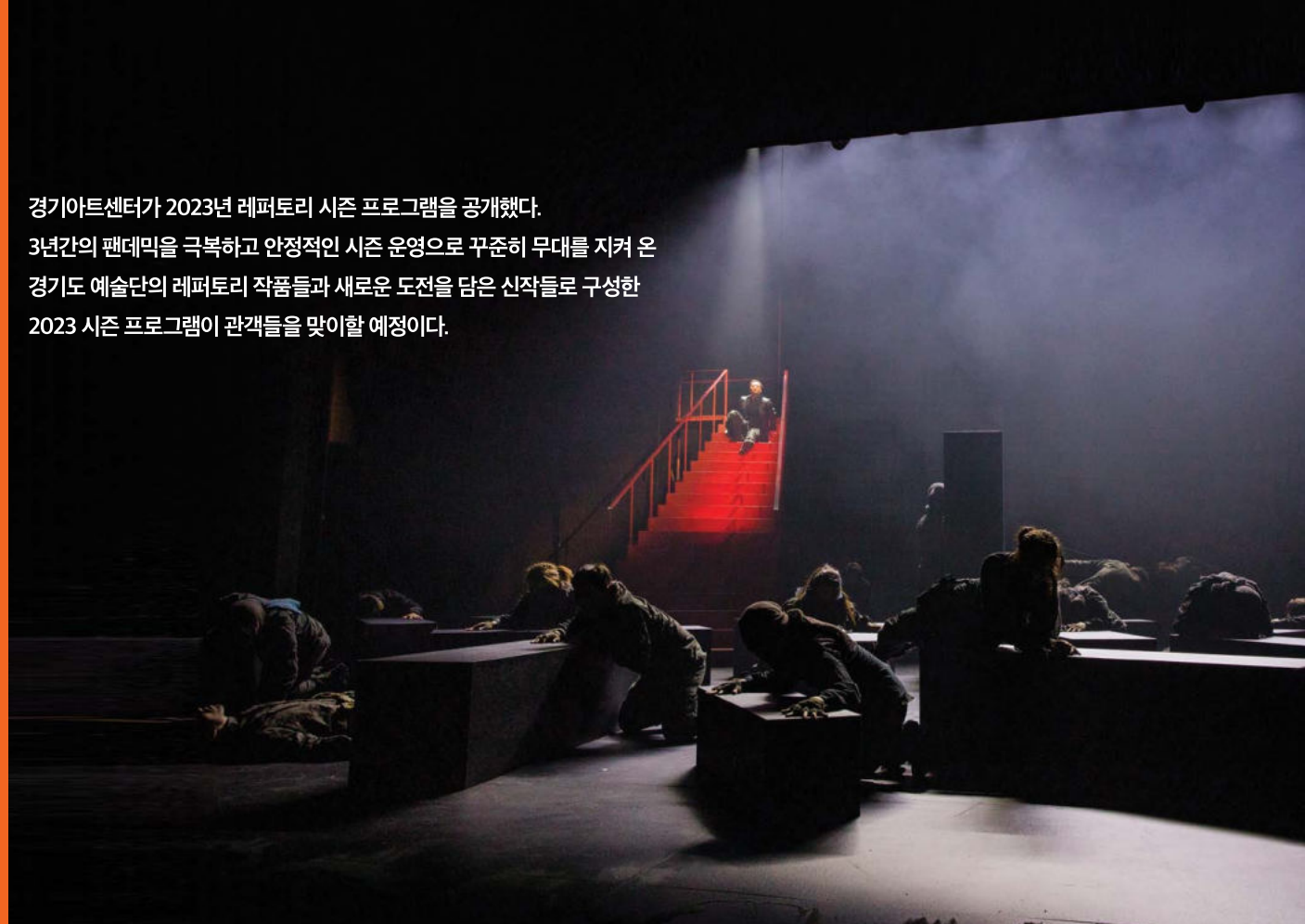
**2023년, 4개 예술단
20개 작품이
관객들과 만난다**

경기아트센터가 2023년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4개 예술단의 20개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경기도극단과 경기도무용단이 각 3작품, 경기시나위와 경기필하모닉이 각 7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극단과 무용단은 이 중 1개 작품을 지난 시즌에서 선보인 레퍼토리 작품으로 선정했고, 경기시나위는 7작품 모두 지난 시즌에서 선보인 레퍼토리 공연으로 엮어 3년간의 성과를 관객들과 나눈다.

경기아트센터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관객들을 더 가까이 찾아가 만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기도예술단의 도전은 2023년에도 이어진다. 경기아트센터에 서만 만나볼 수 있는 레퍼토리 시즌 공연으로 지역 관객들에겐 경기도예술단의 우수한 작품을 가장 먼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공연을 통해 작품 완성도는 높이면서 수도권 관객들에겐 검증된 작품으로 경기도예술단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기 위함이다.

레퍼토리 시즌 외에도 경기도예술단이 축적한 레퍼토리 작품을 다양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는 요청으로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예술단의 레퍼토리를 들고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갈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가 2023년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3년간의 팬데믹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즌 운영으로 꾸준히 무대를 지켜 온
경기도 예술단의 레퍼토리 작품들과 새로운 도전을 담은 신작들로 구성된
2023 시즌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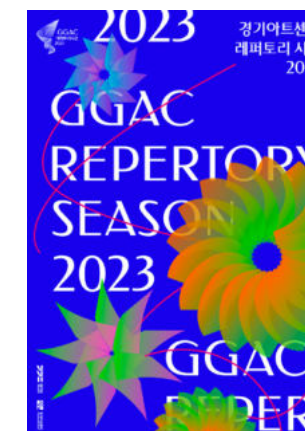
경기도극단

**창작과 고전을
아우르는 깊은 시선,
경기도극단**

경기도극단은 2023년 레퍼토리 1작품, 신작 2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인간과 우리 시대에 대한 깊은 시선을 담아 창작희곡부터 고전작품을 아우른다. 독특하고 색다른 시도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지난 3년간의 변화로 다져온 경기도극단의 올해 작품들은 어떨지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주목할 작품은 거장과 신진 연출가가 한 무대를 사용하여 1부, 2부 각각 두 개의 작품을 올리는, 색다른 시도의 '원 스테이지 <죽음의 배> & <갈매기>'(6.29~7.9)다. 한태숙 예술감독은 <갈매기>의 작, 연출을 맡아 평생을 연극배우로 살아온 여배우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꿈과 좌절을 그려낸다. 같은 무대에 작품을 올릴 비 트라벤 작가의 <죽음의 배>는 연극계 라이징 연출가가 맡아 소모품처럼 노동을 강요당하는 떠돌이 선원들의 삶을 무대 위에 그려낸다.

<2023 창작희곡 공모전 당선작>(5.2~5.7)도 무대에 오른다. 2023년 2회 공모전에서 선발된 당선작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가적 상상력과 시대와 관객이 요구하는 작품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인만의 신선하고 감각적인 해석으로 연출하는 경기도극단 김정 상임연출이 맡아 막 세상에 선보인 창작희곡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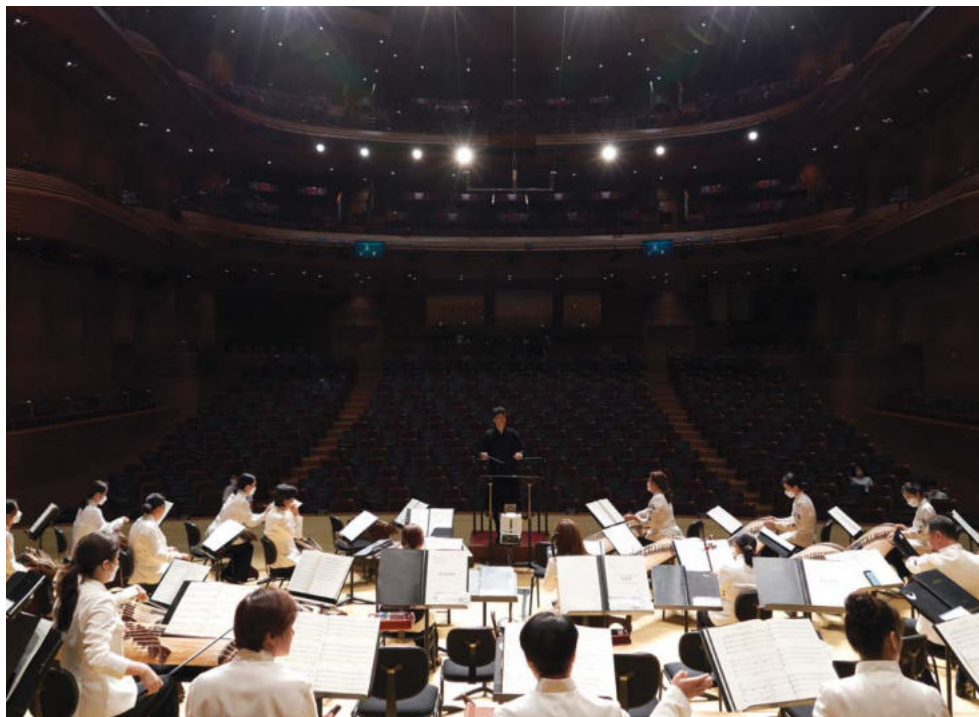
경기도무용단

독창적인 음향 정체성을 선보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지난 3년간 선보인 레퍼토리 중 주제에 맞는 곡들을 고려해 각기 다른 색깔의 <시나위 악보가게>를 펼쳐 보인다. 이일우 수석악장이 음악감독을 맡은 <이루와요(謠)>(4.22)와 장태평 부지휘자가 음악감독과 지휘를 맡은 <태평하계>(6.3)에서는 한국 창작음악계의 미래이자 경기시나위의 음악적 도전을 이끌고 있는 두 아티스트를 만나볼 수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사물단원으로 구성된 연희양상블 궁의 무대로 펼쳐질 <불휘깊은 가락, 궁궁>(8.18~8.20)과 성악 앙상블 소리봄의 무대 <소리봄, 들어봄, 함께봄>(9.9)에서는 경기시나위가 보여주는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습과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역(易)의 음향>(5.13)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전 단원들이 참여하는 공연이다. 즉흥 음악 전문 연주자들과 원일 예술감독, 이일우 수석악장, 장태평 부지휘자가 단원들과 오랫동안 고민하며 구상해 온 관현악을 위한 시나위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대표 브랜드 시리즈인 <반향 2023 : 불이(不二)>(12.2~12.3)에서는 한국의 3대 성악곡이자 귀한 전통음악 유산인 불교의 범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신예부터 명인까지 우리 춤의 아름다움 선사, 경기도무용단

2023년 경기도무용단의 시즌은 우리 춤의 전통을 만들어 온 명인들과 우리 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신예, 중견 안무가들이 채운다. 경기도무용단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명작 컬렉션 舞>(4.21~4.23)는 역대 예술감독들의 대표작품을 통해 경기도무용단의 작품세계를 되돌아보고 우리 춤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한국 춤의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고 경기도무용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랑-함께 날아오르다>(6.16~6.17)는 2021년 초연한 최은아 안무의 <메타 프리즘>을 정식 공연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모티브를 얻어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기 위해 현재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LDP 현대무용단의 김동규 대표와 경기도무용단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being : 비앙>(12.15~12.16)은 존재라는 뜻과 빙빙 맴돈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존재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내 정상급 지휘자들과의 조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은 2023년에도 마스터피스 시리즈를 이어가며 국내 정상급 지휘자들과 조우한다. 첫 번째 무대 <마스터피스 시리즈 V>(3.22/3.23)는 경기필하모닉과 인연이 깊은 성시연 지휘자가 연다.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성시연이지만 국내 무대에서 '말러 교향곡 6번'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마스터피스 시리즈 VI>(4.13/4.14)에서는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으로 독일 오페레타상 지휘자상을 동양인 최초로 수상한 지휘자 지중배와 만난다.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에스메 콰르텟이 미국 작곡가 존 애덤스의 2012년 작품인 '완벽한 농담'을 협연한다.

<마스터피스 시리즈 VII>(5.27/5.28)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지휘자 최수열이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을 지휘한다.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난곡으로 악명 높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협연한다.

<마스터피스 시리즈 VIII>(6.23)에서는 지휘자로 활발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선욱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으로 경기필하모닉과 첫 호흡을 맞춘다. <마스터피스 시리즈 IX>(10.21/10.22)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이 경기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들려준다. 더불어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한다.

2023년의 마지막 무대 <마스터피스 시리즈 X>(12.7/12.8)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이 지휘봉을 잡아 20세기 최고의 난곡이라 불리는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을 연주한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베이스 연광철이 부르는 바그너 오페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50주년 기념 한국 공연

파격·역동의 무대, 수퍼스타가 돌아왔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프로듀서 정회진/제작 블루스테이지)가 7년 만에 국내 관객과 만난다.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어로 공연되는 이 작품은 오는 2월 11일~12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음악적 카타르시스와
양상블의
역동적 에너지 선사** 브로드웨이 초연 5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이자 한국어 공연으로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돌아온 <수퍼스타>의 라인업은 개막 전부터 음악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캐스팅으로 공연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열두 제자들의 리더이자 신이 예언한 죽음의 길에 대해 고뇌하는 ‘지저스’ 역에는 마이클리와 임태경이 캐스팅됐다. 마이클리는 2000년 브로드웨이에서 시몬 역을 시작으로 수많은 <수퍼스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누구보다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지저스 역할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무대를 선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한국어 공연에서 지저스로 참여했던 임태경은 15년 만에 <수퍼스타>와 다시 만났다. 그는 폭발과 절제를 넘나드는 감정 표현을 무기로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작품 안에서 지저스와 대적하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자 지저스의 명성이 불러올 결과와 가난한 이들을 걱정하는 유다. 극중 유다는 고뇌, 분노, 불안, 자책, 후회 등 큰 감정적 변화를 겪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한 음악은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유다 역은 한지상, 윤형렬, 백형훈, 서은광이 맡았다. 더불어 무대를 채우는 에너지로 극의 물입을 돕는 <수퍼스타> 양상블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각 넘버와 장면에 맞춰 생기 넘치는 표정과 역동적 군무로 좌중을 압도한다.

오랜 기다림 끝의 만남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수퍼스타>. 국내 뮤지컬 팬들과 관객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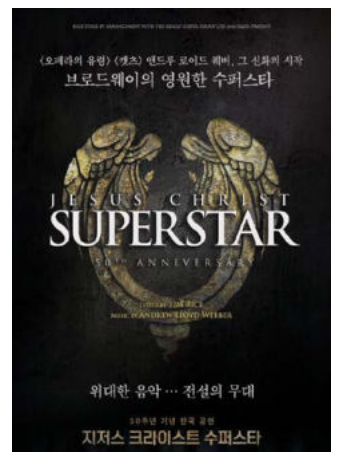
운명 앞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인간적인
‘지저스’ 부각

197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이하 <수퍼스타>)는 세계적인 뮤지컬의 거장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와 작사가 팀 라이스(Tim Rice)가 청년 시절 선보인 작품이다. 웨버의 대표작으로는 뮤지컬 <캣츠>(1981), <오페라의 유령>(1986) 등이 있고, 섬세한 가사로 유명한 팀 라이스의 대표작으로는 <라이온킹>(1997), <아이다>(1998) 등이 있다.

<수퍼스타>는 지저스의 생애 마지막 7일을 다룬다. 지저스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결국 배신하는 제자 유다, 지저스를 유대의 왕이라 추앙하던 이들이 점차 변해가는 등 지저스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종교적 관점이 아닌 주어진 운명 앞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전 세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에서는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버전으로 2004년 첫 정식 라이선스 공연을 가졌으며 이후 2006년, 2013년, 2015년 네 차례 공연이 진행됐다. 국내 1세대 뮤지컬 프로듀서이자 2004년 국내 관객들에게 정식 라이선스 공연으로 <수퍼스타>를 처음 선보인 설도윤 프로듀서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지난 시즌을 성공으로 이끈 서병구 안무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을 비롯 정회진 프로듀서, 홍승희 연출 등 새로운 제작진들이 합류해 기대를 더한다.

홍승희 연출은 “새롭게 만든 무대 세트를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했다.”고 말하며 “인간 내면을 표현한 양상블들의 역동적인 안무가 더해져 좀 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50주년 기념 한국 공연



일시 2.11(토)~2.12(일)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30-3440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뒤틀린 욕망 들춰낸 블랙코미디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윤미현 극작가와 극단 백수광부, 경기아트센터·성북문화재단·관악문화재단·안양문화재단 등의 예술문화계가 힘을 합쳤다.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12월 10일, 11일 양일간 선보인 공연은 서울, 안양에 이은 2022년 마지막 무대였다. 무대 위를 뛰노는 대사들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우리 사회 곳곳을 들춰낸다. 과연 무대에 스며든 현실이 객석에서 체감하는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

‘웃픈’ 현실 세태를 다채롭게 그려낸다

좀비처럼 지내던 태식은 아빠의 도움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취직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부지 개발정보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확보할 생각에 흥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전교 1등 중학생 딸이 있다. 아빠는 딸에게 공부 대신 돈 벌 공리를 하라며 다그친다. 딸은 자의반 타의반 자퇴한 뒤 부동산 사관학교에 입학한다. 이곳에는 부동산에 매달리고 땅을 향한 믿음으로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만이 있다.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곳을 맴돈다.

관객 앞에 놓인 풍경은 조금 낯설다. 무대에는 현실의 모습이 뒤틀린 채 다소 이상한 모습으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가관이네>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과연 연극은 낯설고 뒤틀린 무대 위에서 어떻게 현실과 관계를 맺을까.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는 무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눈길을 끈다. 이번 연극에서 윤미현 작가는 현실을 질료 삼아 이야기와 대사를 무대로 불러냈다. 이와 동시에 연출진이 언어가 마음껏 뉘눌 수 있는 공간을 무대 위에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감칠맛을 품은 생생한 대사들이 무대를 수놓는다.

이때 인물의 언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상황과 배경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대를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 추억을 들여다보듯 먼 과거의 따스한 질감을 불러오는 배경 구조물, 복고 게임에 나올 법한 음향효과 때문인지 인물들이 돌아다니는 이곳이 현시대와 정확하게 연동된다고 여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곳은 현실을 굴절시킨 가상 세계가 될 텐데, 이때 연극이 다루고 있는 ‘부동산 다단계 투기’와 ‘물질만능주의’ 등의 키워드는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의 삶에 녹아든 채 관객들에게 인식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렇다면 이곳은 현실에 가까운 걸까? 다시 인물들의 복장을 찬찬히 살핀다. 맞춤 정장이 아닌 탓에 기장이 조금 남는 듯한 양복, 자주 입어 늘어져 버린 맨투맨 티셔츠, 엄마의 빛바랜 회색 카디건, 눈이 아플 정도로 반복되는 패턴이 수놓인 할머니의 일명 ‘몸빼’ 바지. 분명 이들의 차림새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오고 가며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현실감을 머금고 있다.



의도적인 왜곡과 비약, 날카롭고 씩씩한 현실 풍자

인물들이 서로 소통할 때 혹은 관객과 교류할 때 내비치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역시 극도로 과장된 비현실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가령 ‘꿈 같은 건 없어도 된다. 이 나라에선 집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표현도 그렇고, 돈을 숭상하듯 완전히 흘러 버린 양 부장의 모습은 외면하고 싶은 우리네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볼 법한 인상을 풍기는 말과 행동들이 무대를 지배한다.

가족들은 ‘땅’에 매달리다 모두 망가져 버렸다. 아빠는 콩팥을 팔아 땅을 샀고, 딸은 사관학교의 가르침에 세뇌당했고, 오빠는 다단계부동산 사기업체의 횡포에 꼼짝없이 당했다. 이제 중학생 딸이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읊조린다. “우리 에겐 아직 콩팥이 몇 개 남아 있다”고 말이다. 희망찬 어조에 씩씩한 무력감이 배어 있다. 우리가 알던 학생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다. 영특하고 꿈 많던 이는 이제 황금만능주의에 잠식됐다. 사람이 달라지고, 대사가 달라졌다.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 연극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일상복을 입은 듯 보였던 인물들의 옷차림에선 어느새 형형색색의 기괴한 인상이 묻어난다. 무대 공간 역시 사람 냄새나는 단란한 공간이 아닌 맹목적인 믿음과 그릇된 가치관을 지닌 뒤틀린 존재들이 허우적대는 늪의 한가운데로 변해버렸다. 이제서야 현실 같은 무대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어느새 뜯어져 나간 무대 뒤의 사다리가 눈에 밝힌다. ◀

글 — 송상호

경기일보 문화체육부 기자. 일상 속에서 언제나 예술과 문화를 머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극장과 전시관, 책방과 공방을 오가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접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022 〈토크콘서트 : 랑데북〉을 돌아보며

공연기획자의 노트



**This is
the Moment,
모든 순간**

경기아트센터 브랜드 토크콘서트 <랑데북>, 화양연화 2년, 랫츠 북앤무비 1년을 합하면 2016년부터 벌써 7년을 이어온 기획공연이다. '유튜브로 보는 거랑 뭐가 달라?'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 기획안을 쓸 때마다 비교하게 된다. 조금 더 달라져야 한다. 출연자들이 눈앞에 실제로 앉아 있고, 통신망을 거치지 않은 가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 단지 이것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담아내려 노력한다. 이렇게 2022년도 무사히 두 번의 시리즈를 마쳤다.

기획의 첫 단추는 항상 주제 선정이다. 올해는 공연이 몇 번이지, 그럼 주제는 어떤 걸로 해야 서로 연관성을 붙여낼 수 있을까? 이 키워드면 이런 대화들로 이끌어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출연진 구상으로 넘어간다. <랑데북>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누가 말을 잘할까', '어떤 프로그램 보니 그 사람이 달변이던데', '아, 그 사람은 논란이 있지' 등등.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인디계에서 제법 알려진 가수를 게스트로 모셨는데 노래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도통 대화에 참여를 못 하시던 그분. 모든 질문에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글썄요?"로 답하시던...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내내 좌불안석이었고, 관객의 평이 좋을 리 없었다. 반대로 공연 내내 자신만의 페이스로 이야기를 쏟아내던 인디그룹도 있었다. 그 공연 역시 진행하는 내내 덜덜 떨어야 했다. 공연이란 결국 관객이 재미있게 느꼈냐, 지루하게 느꼈냐에 모든 게 달린 거니까.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기획·제작·출연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관객들은 잘 알지 못한다. 오로지 '나는 이 공연의 티켓을 구매해서 들어왔고 얼마나 공연이 재미있었는지, 노래가 좋았는지' 등 주관적 감정으로만 평가하는 냉정한 세계다.



황인찬 시인



윤덕원(가수, 브로콜리너마저)



이동진 평론가



정우철 도슨트



배명훈 작가

그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즐거워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SNS상에 서 더 잘 나가는 시대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혹은 낯선 인터넷 방송 어딘가에서도 흥미진진한 화젯거리를 이야기하고 대중은 그것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마치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처럼 느낀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콘텐츠들이 활기를 띠면서 집에서 편히 듣는 공연들이 대세가 되었다. 공연기획자로서 거대한 도전이 닥쳤다고 해야 할까?



RANDEZBOOK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귀를 기울이며**

그렇다고 관객들이 느끼는 점이 모두 같은가? 당연히 그 또한 아니다.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모두 느낌이 다르다. 여기서 기획자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과연 어느 지점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 <랑데북>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 온 역사이자, 이유이기도 하다.

그중 하나가 추천도서·영화인데, 예전 화양연화, 랫츠 북앤무비, 그리고 <랑데북>의 초기에는 출연자들이 선정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였다. 관객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겠구나'하며 기대하고 와서 집중하여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느꼈는데, 출연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각자의 생각을 현장에서 주고받는 그 순간을 사람들이 즐겼으니까.

반면 단점은 토크콘서트의 특성상 어떤 작품은 비중 있게, 어떤 작품은 간략하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공연 전 시간을 쪼개 작품을 보고 읽은 관객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싱겁게 지나가면 너무나 아쉽고, 해당 작품이 생소한 관객은 모처럼 찾은 공연장에서 도통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자니 지루한 것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하는 마음에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과감하게 추천작품을 공지하지 않고 출연자들의 이야기 영역으로만 남겨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궁금한 이야기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유도해 보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다. 어쩌면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집에서 보는 유튜브 라이브나 인터넷 방송국 스트리밍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서일까.



잔디(키보드, 브로콜리너마저)



류지(드럼, 브로콜리너마저)

The Show Must Go On, 공연은 계속된다

2023년에 펼쳐질 <랑데북>에서는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넣어 야 할까. 누구를 섭외해야 맛깔난 이야기보따리가 풀릴까? 요새 이 그룹이 엄청 핫하는데, 섭외할 수 있을까? 출연료는? 이번에도 관객 굿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신하고 신선한 배포물은 뭐가 있을까? 고민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아마도 공연 그리고 관객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겠지. 매일매일 이어지는 장기 상영 뮤지컬도 하루하루 고민이 반복되지만, 공연을 접하는 관객들에게 그 순간은 처음이니까. 문득 공연 하나가 떠오른다. <아이위시> - 'I wish my life were like a musical'라는 참 길기도 긴 원제를 가진 작품이다. 배우들의 무대 위 모습, 무대 뒷 모습, 배우로서의 삶을 획극적으로 묘사한 옴니버스 뮤지컬이었는데, 출연 배우 중 한 명이 프로그램북에 이런 후기를 남겼다. “공연은 중독인 거 같아요.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 작업 자체가 마냥 신났던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런데 너무 힘들고 죽겠다가도 무대에 올라가고 관객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고 막공까지 잘 버티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의 심이 오면 더 값지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중독인 거 같아요.” 어쩌면 공연기획은 모두 그런 게 아닐까. 힘들고 버겁다가도, 출연자들의 무대 위 생동감 넘치는 모습. 그 모습에 반응하는 관객의 박수와 환호에 모든 게 씻겨 내려가고, 다음번에 또 힘들 것을 알면서도 다시 도전하고. 매번 매 순간 무대 위에 직접 올라가지는 않지만, 무대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긴장감. 오늘도 공연 날짜를 계속 떠올리며 기획안을 구상한다. 그날에도 출연진들의 인사와 함께 쏟아지는 박수를 기대하면서. ◀

글 — 이정현(경기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주임)

넓고 알계를 추구하는, 공연이 좋아서 이 세계에 들어온 서른 다섯살 청년. 클래식과 뮤지컬, 인디에까지. 남들과는 어딘가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진 그는 오늘도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휴일을 보낸다.

예술이 만난 인문학
우리 시대의 좋은 음악

트윅작
K팝의 영리한 클래식 활용법

컬처로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적인 접근
비영리단체 스카이하이팜

예술 알고리즘
생명공학이 뿌린 씨앗, 예술로 꽃 피우다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ONF Talk

*강렬하고 친근한 ON&OFF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이야기

우리 시대의 좋은 음악

종종 어떤 음악이 좋냐는 질문을 받는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 음악을 연구할 수 있다. 음악의 기능에 관한 연구다. 우리 시대, 음악이 가진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스테파노 만쿠소 & 알렉산드라 비올리, 『매혹하는 식물의 뇌』 (서울·행성비, 2016)

성장과 치료에 좋은 음악

이탈리아의 식물학자 스테파노 만쿠소(Stefano Mancuso)에 따르면 식물은 몸의 하반신이 땅에 묻혀 있고 이 하반신은 땅으로 전달되는 진동에 특히 예민하다. 상반신도 진동을 지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땅으로 전달되는 진동에 더 예민한 식물에 음악을 들려주려면 공기 중에서 연주하기보다 땅을 두들기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다. 100~500Hz 사이의 낮은 음향은 식물의 발아 및 생장 등을 촉진하지만, 그 밖의 주파수는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¹⁾.

식물 생장을 촉진하는 음향이 있다면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음향이나 음악이 있을까? 이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을 찾지 못했다. 인터넷 공간은 대조적이다. '인간 성장 호르몬 방출을 위한 음악' 등의 제목이 달린 음향을 검색할 수 있었는데, 조회 수가 무려 200만 회가 넘었다. '21세 이후 키를 크게 하는 음악'이라는 기막힌 제목의 영상도 있었다. 놀라운 세상이다.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주장과 그렇지 못한 주장을 구분할 방법을 모른다. 인간에게는 키를 키우고픈 만큼이나 강력한 욕망이 두 가지 있다. 질병으로부터 낫고 싶은 욕망과 아이의 지능을 높여주고 똑똑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다. 전자에 대처하는 음악적 연구는 인간의 여러 욕망에 대처하는 음악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를 음악 치료학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음악치료의 사례, 그 이전 등에 관한 연구인 음악 치료학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 질병 치료와 질병 완화 혹은 유지 등의 구체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논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치료와 완화 등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정의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음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음악 치료학의 관점에서 좋은 음악은 치료 효과가 있는 음악이다.



지능, 지각, 발달, 교육 효과에 좋을 수 있는 음악

과연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음악이 있을까? 모차르트 효과(Mozart Effect)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난 직후 IQ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고전음악을 접한 경험이 심적 발달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두루뭉술한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일종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이 지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례, 방식 등을 연구한다고 할 때, 상술한 음악 치료학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한 효과를 보이는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지적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적 경험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지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접근은 무리가 있다.

원래 예술을 통해 인간이 여러 가치를 배운다는 논리가 있었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일상적 경험 중 하나인 예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면서 일상과 멀어졌다'며, 일상과 자연의 영역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적 경험은 훌륭한 배움이다. 순수예술은 배움을 제공하는 좋은 경험으로 특히 지각을 훈련시킨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음악이란 지각적인 훈련 효과가 높은 음악이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음악은 인간 개체의 발달상의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고, 그 필요성이 음악을 발달시키고 진화시켰다고 말한다. 우리가 음악에 끌리는 이유는 평생 진행되지만, 특히 생후 20년 동안 중요하게 진행되는 정상적 뇌 성장과 발육을 위해 여러 종류의 청각적 자극을 경험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현대인의 필수 영양성분이라 할 수 있는 비타민C를 예로 들어보자. 우연히 접한 사과를 달고 상큼한 것으로 인식한 이들은 자연스레 사과 속 비타민C를 자주 섭취하게 되어 면역력 역시 높아질 것이다. 반면, 쾌감 체계가 미비해 사과를 달게 느끼지 않고 먹지도 않는 이들의 면역력은 이에 비해 낮을 것이다. 이처럼 음악을 자주 접하고 이에 대한 쾌감 체계가 장착된 뇌는 그렇지 않은 뇌보다 건강하다. 청각피질²⁾ 영역도 발달상의 필요성과 연계된다. 음악은 청각피질의 비타민이다. 물론 생존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비타민C와 음악은 우연히 필요에 부응했고, 이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음악은 발달 효과가 큰 음악이다.

사유 훈련에 좋을 수 있는 음악

이렇게 음악의 여러 기능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각 기능의 맥락에서 좋은 음악을 논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제 세상의 음악학자들이 잘 주목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음악적 경험의 유용성을 지적한다. 음악은 사유의 훈련도 유도할 수 있다. 음악 청취 경험이 음악과 사람, 창작 계기, 역사 등의 학습으로 연결될 때 사유의 조련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각 훈련에 적합한 음악은 쾌감을 준다. 사유 훈련은 쾌감이라는 동력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사유는 생소하거나 불편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사유 훈련에 적합한 음악은 조화로운 음들만으로 채워진 음악이 아닐 수 있다. 사유 훈련에 도움을 주는 음악은 새로운 예술적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유 훈련에 도움을 주는 음악은 인류의 자연사회적 문제에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다. 오늘날 예술가들과 예술학자들은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예술의 진정한 이익과 가치를 옹호해야 할 처지에 있다. 지친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적 순수예술에 별반 감동하지 못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발과 조롱, 불친절에 대해서도 큰 위로와 통찰을 얻지 못한다. 예술의 가치와 권위는 힘든 삶을 표현하고 그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서의 통찰을 제공할 때 성립된다. ◀

음악은 사유의 훈련도 유도할 수 있다.
음악 청취 경험이 음악과 사람, 창작 계기, 역사 등의 학습으로 연결될 때 사유의 조련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글 — 김진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동 대학교의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4대학에서 음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안동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매혹의 음색』과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등의 저서가 있다.



루이 갈레(Louis Gallait, 1810-1887) - <음악의 힘>
무덤가에 오빠와 그의 누이가 쉬고 있다. 오빠는 그의 누이를 위로하려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그의 의도대로, 그의 연주의 힘에 따라, 누이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출처: 위키미디어

K팝의 영리한 클래식 활용법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K팝이 다시 클래식과 손을 잡았다. 과거 국내 대중가요계에 유행처럼 번졌다 사라진 클래식 샘플링 붐이 K팝을 만나 보다 영리한 귀환을 알렸다.

클래식 샘플링으로 글로벌 리스너들의 취향 저격한 K팝

지난해 9월 블랙핑크가 발매, 전 세계 주요 음악차트에서 굵직한 기록을 세웠던 '셧 다운(Shut Down)'은 공개 전부터 이탈리아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역작 '라 캠파넬라(La Campanella)'를 샘플링한 곡으로 화제를 모았다. 화려한 기교와 강렬한 연주로 압도적인 선율을 자랑하는 명곡 '라 캠파넬라'와 만난 블랙핑크의 유니크한 힙합 비트는 글로벌 리스너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레드벨벳의 '필 마이 리듬(Feel My Rhythm)' 역시 클래식 명곡 중 하나인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해 사용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G선상의 아리아'의 멜로디를 곡 전반에 걸친 멜로디로 활용한 '필 마이 리듬'은 그간 키치하고 실험적인 스타일의 곡들을 주로 선보여온 레드벨벳의 이미지 변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레드벨벳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필 마이 리듬' 외에도 꾸준히 클래식과 K팝의 협업을 이어오는 중이다. SM은 서울시향과 장르 간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장르를 뛰어넘은 K팝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SM스테이션을 통해 공개된 샤이니 종현의 '하루의 끝(End of a day)'에서 드뷔시의 '달빛'을 샘플링했던 것도 이 같은 협업의 결과물이었다.

정통 클래식은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를 샘플링해 파격적인 차별화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여자)아이들은 신곡 '누드(Nude)'에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인 '하바네라'를 샘플링해 자신들만의 강렬한 음악적 색채에 힘을 실었다. 대중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짜 본연의 자신을 보여주겠다는 (여자)아이들의 메시지는 '하바네라'의 멜로디를 만나 한층 웅장하고 인상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됐다.



그룹, 블랙핑크 © YG엔터테인먼트



그룹, 레드벨벳



왜 '클래식'일까?

국내 대중음악의 클래식 샘플링 사례가 지금의 K팝 신에서 처음 포착된 것은 아니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부터 god의 '어머님께', 동방신기의 '트라이앵글(Tri-Angle)'까지 국내 가요에서 클래식 샘플링을 활용한 곡들은 다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잠시 클래식 샘플링의 사례는 주춤해졌다. 신나는 아이돌 음악이 각광을 받았던 당시 국내 가요계 흐름과 맞물리면서 클래식 샘플링을 활용한 음악이 갖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탓이다.

그렇다면 지금 클래식 샘플링의 트렌드가 다시 부활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국내 가요계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3, 4세대 아이돌들을 필두로 판도를 구축한 만큼, K팝이 다시 한번 클래식을 택한 이유에 시선이 쏠린다. 클래식 샘플링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성의 확보'다. 이미 전 세계인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명곡들의 멜로디를 활용할 경우 신곡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선호도를 높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신곡을 접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곧 흥행을 좌우하는 필수 과정인 지금, 전 세계 음악팬들을 상대로 존재감을 알려야 하는 K팝 가수들에게 클래식만큼 매력적인 소재는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과거 발매된 다른 가수의 곡을 샘플링할 경우 상당한 저작권료를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클래식 샘플링의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 역시 적어진다는 것도 제작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점이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등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의 곡들은 사실상 현재 대부분 저작권이 말소된 상태다. 특정 연주자가 녹음한 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인접권까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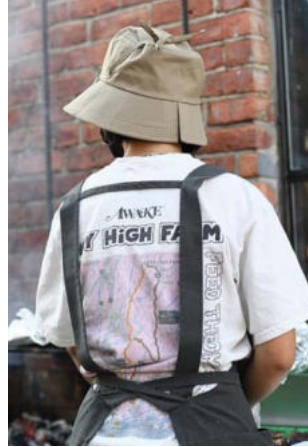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클래식 원곡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를 팀의 색깔과 맞물려 활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콘셉트 파급력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한편, 원곡의 느낌만으로도 해당 곡이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점은 치열한 '콘셉트 싸움' 중인 K팝 시장에서 상당한 힘을 갖는다. ▶

글 — 홍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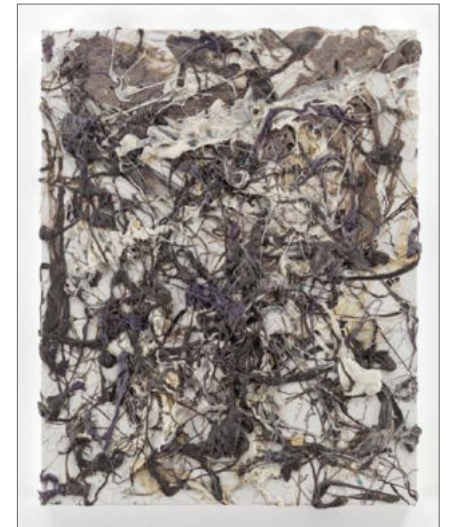
한국일보 이앤비엔터뉴스팀에서 가요 담당 기자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가요 시장에 대한 글을 쓰고, 글로벌 시장으로 입지를 넓힌 K팝의 흐름을 전망한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적인 접근

비영리단체 스카이하이팜



이미지 출처: 스카이하이팜



이미지 출처: artsy

예술의 역할을 묻던 아티스트, 도시를 떠나다

패션과 예술을 입은 식량 불안 문제. 스카이하이팜은 어떻게 유일무이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이곳의 설립자, 댄 콜런(Dan Colen)의 노력이 있었다. 기존 사회질서와 규범에 도전하고, 그것에 의문을 던지는 아티스트인 그는 화랑에 전시되는 미술 작품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스카이하이팜의 여정 자체를 예술로 빚어가고 있다.

사회의 위계나 인식, 규범에 도전하는 작품을 선보인 댄 콜런은 예술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구이며,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려는 의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천함과 숭고함, 저급과 고급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품의 조건'에 의문을 던져온 그는 뉴욕에 위치한 대형 갤러리, 가고시안(Gagosian)에 소속된다.

미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아트 딜러, 래리 가고시안이 운영하는 이곳은 백남준 작가가 한때 전속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맨해튼에 위치한 1,500여 개의 크고 작은 갤러리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고시안 갤러리는 사립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관, 박물관에 필적하는 높은 기획력과 섭외력을 보여준다. 시장의 구조와 인식에 저항하는 그의 작품이 아이러니하게도 메가 갤러리와 시장에서 인정받는 '블루칩'이 된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며, 예술이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에게 예술은 기존의 질서에 물음을 던지고, 현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1년, 그는 뉴욕 외곽의 허드슨 벨리로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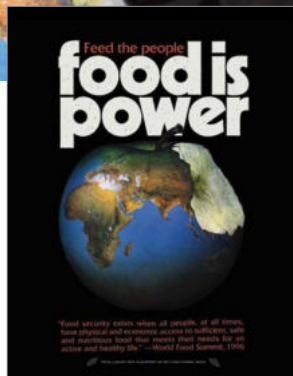
**예술과 패션,
식량 불안 문제를 해결하다**

콜런은 허드슨 밸리에 위치한 40에이커(약 5만 평) 규모의 땅을 구입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에게 농장을 일구는 것은 질서에 도전하는 예술가에서 시장성 있는 블루칩 예술가로 달라진 위상을 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었다.

농부들과 함께 스카이하이팜 농장에서 수확, 가공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모두 뉴욕의 소외된 사람들,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0톤이 넘는 음식을 나눴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콜런이 예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구조와 인식에 저항, 도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이기도 했다.

비영리단체인 스카이하이팜이 광활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는 돈이 필요했다.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던 콜런은 2019년, 꿈데가르송의 디렉터 레이 가와쿠보와 그의 남편 아드리안 조프가 이끄는 편집숍 '도버스트리트마켓'을 만나며 다시 한번 도약한다. 본격적인 협업의 시작은 2020년 진행됐던 스트릿 브랜드들과의 콜라베이션이였다. 여기에는 수프림, 어웨이크뉴욕, 브레인데드 등 감각적인 스트릿웨어를 전개하며 씬을 선도하는 12개의 브랜드가 포함됐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의류 라인을 전개하는 토탈럭셔리스파(Total Luxury Spa)의 강렬한 그래픽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과에 지구본을 오버레이한 그래픽, 그 위에 쓰인 'FOOD IS POWER'라는 문구는 스카이하이팜의 문제의식을 집약해놓은 듯했다.

비영리단체인 스카이하이팜이 광활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는 돈이 필요했다.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던 콜런은 2019년, 꿈데가르송의 디렉터 레이 가와쿠보와 그의 남편 아드리안 조프가 이끄는 편집숍 '도버스트리트마켓'을 만나며 다시 한번 도약한다. 본격적인 협업의 시작은 2020년 진행됐던 스트릿 브랜드들과의 콜라베이션이였다. 여기에는 수프림, 어웨이크뉴욕, 브레인데드 등 감각적인 스트릿웨어를 전개하며 씬을 선도하는 12개의 브랜드가 포함됐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의류 라인을 전개하는 토탈럭셔리스파(Total Luxury Spa)의 강렬한 그래픽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과에 지구본을 오버레이한 그래픽, 그 위에 쓰인 'FOOD IS POWER'라는 문구는 스카이하이팜의 문제의식을 집약해놓은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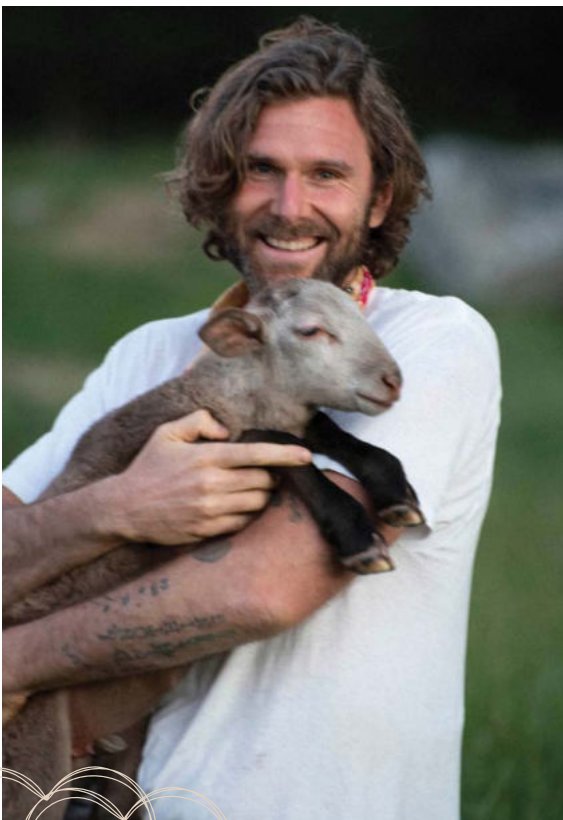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스카이하이팜

스카이하이팜은 뒤이어 프리즈 뉴욕과 연계해 23명의 작가와 협업을 선보였다. 댄 콜런을 비롯해 제프 쿤스, 무라카미 타카시 등 저명한 작가들이 협업에 동참했다. 최근에는 의류라인 '스카이하이팜 워크웨어(SHFWW)'를 론칭하고 캔버스, 발렌시아가와의 협업을 선보였다. 특히 발렌시아가와의 협업으로 발매한 의류에는 댄 콜런의 친구이자 사진가인 라이언 맥킨리가 촬영한 스카이하이팜의 동물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들이 의류를 발매해 거두어들인 모금액은 모두 지속 가능한 농업과 그들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에 사용됐다.

스카이하이팜의 옷을 구매한 사람은 식량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에 모금한 후원자이자, 메시지를 선전하는 활동가가 된다. 패션과 예술, 그리고 영농업이 결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미지 출처 : 스카이하이팜



이미지 출처 : 스카이하이팜

한 가지의 테두리에 종속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창조성이 나올 수 있기에 이들의 움직임은 예술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팬데믹과 전쟁, 혐오와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난의 시대, 어쩌면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바꾸는 거센 돌풍이 될지도 모르겠다.

**재난의 시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콜런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했다. 그는 예술이 인간에게 자양분 또는 주요한 경험을 제공하며 여전히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예술 작품'으로 불리는 것들이 시장 바깥에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나아가 예술가들이 시장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자기만의 문제의식과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스카이하이팜, 그리고 콜런의 움직임은 예술, 패션, 영농이 서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는 한때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농부 혹은 활동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타이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창조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구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시인한다.

한 가지의 테두리에 종속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창조성이 나올 수 있기에 이들의 움직임은 예술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마치 갤러리와 화랑에 전시된 미술품만이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다. 팬데믹과 전쟁, 혐오와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난의 시대, 어쩌면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바꾸는 거센 돌풍이 될지도 모르겠다.

스카이하이팜의 사례는 패션으로서의 옷, 그리고 '멋'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게 만든다. 각자의 개성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옷 입기는, 그 사람이 지지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는 스카이하이팜 같은 멋진 사례가 늘어나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카이하이팜의 고유함은 패션을 선전물로 이용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입견 자체에 도전한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흙 묻은 농부의 손이 붓을 잡은 예술가의 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예술은 인간의 해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

글 — 박종일

문화예술 커뮤니티 플랫폼 ANTIIEGG 에디터. 차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에 반해, 무엇과도 구별되는 세계를 찾아 제안합니다.



생명공학이 뿌린 씨앗, 예술로 꽃 피우다

예술(Art)의 어원은 ‘숙련되고 합리적인 제작 활동’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르스(Ars)에서 나왔고, 아르스는 기술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즉, 예술은 본래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유전자 변형 예술, 에두아르도 카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DNA와 식물 세포가 결합하여 탄생한 예술 작품이 있다. 바이오 아트(Bio Art)와 유전자 변형 예술(Transge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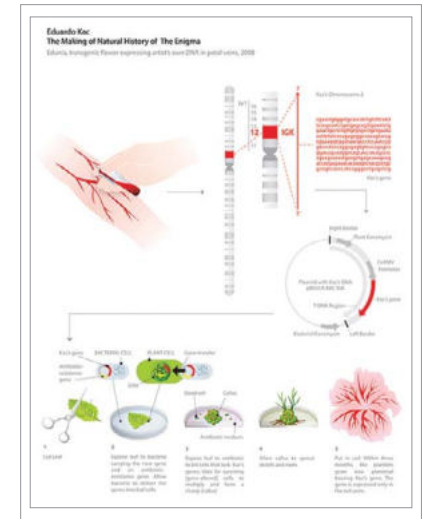
Art)를 최초로 시도한 브라질 출신의 현대미술가 에두아르도 카(Eduardo Kac)이 만든 유전자 변형 예술 ‘이니그마의 자연史’(Natural History of the Enigma)’가 바로 그것이다.

에두아르도 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이니그마의 자연史’ 프로젝트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나팔꽃의 일종인 페튜니아(Petunia)의 세포에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DNA를 융합하여 새로운 식물인 ‘에두니아(Eduunia)’를 만들었고, 2009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와이즈먼 뮤지엄(Weisman Art Museum)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에두니아는 자신의 이름과 꽃의 이름을 합한 명칭으로, 에두아르도 카는 이 작품을 통해 2009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미디어 아트 축제 아르스 전자예술 페스티벌(Ars Electronica Festival)에서 골든 니카(Golden Nica)상을 수상하였다.

시카고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에두아르도 카는 1990년 후반부터 유

전학과 생체기술(Genetics and Biotechnology)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시작했다. ‘창세기(Genesis)’는 1999년 제작한 그의 대표적인 인터랙티브 유전자변형 설치 작품이다. 각의 창세기는 성경 구절인 “사람이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하늘의 새를 지배하고 지구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도록 하라”를 모스 부호(Morse code) 이진법(二進法)으로 번역한 후, 이를 다시 유전자 염기서열(A, C, G, T)로 변환하여 얻은 합성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주입하여, 접시에서 배양시키는 ‘변형하고 진화하는 생명체 예술’이다.



이니그마의 자연史 제작과정 ©Eduardo Kac

유전공학으로 탄생한 새로운 예술

2000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발표한 에두아르도 카의 작품 ‘형광 물질 토끼(GFP Bunny)’는 열대 해파리 젤리 피쉬(Jellyfish)에서 추출한 GFP(Green Fluorescent Protein, 녹색 형광 단백질)

를 백색증(Albinism) 토끼의 수정란에 주입하여 파란색 조명에서 형광 녹색으로 빛나는 토끼 ‘알바(Alba)’를 만든 프로젝트이다.

알바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된 최초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에두아르도 카는 “창조된 삶을 존중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헌신으로 큰 주의가 조심스럽게 기울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며, 미술비평가 디디에 오틀링어(Didier Ottinger)는 “형광 토끼는 우리의 미적 개념과 기준의 재정립으로 이어지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썼다.

또한 에두아르도 카는 홀로그래피 원리를 이용해 문자를 3차원 공간에 구현한 ‘홀로포엠(Holopoems)’, 형광생물의 새로운 생태계를 연구하는 유전자 변형 예술 ‘여덟 번째 날(The Eighth Day)’, 그리고 자신의 몸에 주파수 정보를 인식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원거리 공간과 소통하는 원거리 통신 예술(Telecommunications Art) ‘타임 캡슐(Time Capsule)’ 등과 같은 다양한 과학융합 예술을 시도했다.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명체 예술을 탄생시키고 있는 ‘바이오 아티스트’ 에두아르도 카는 자신의 예술에 대하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존재를 창조해내기 위해, 합성 유전자를 생체에 이식하거나,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유전 물질을 이식하는 유전공학 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좌> 이니그마의 자연史 전시 포스터 ©Eduardo K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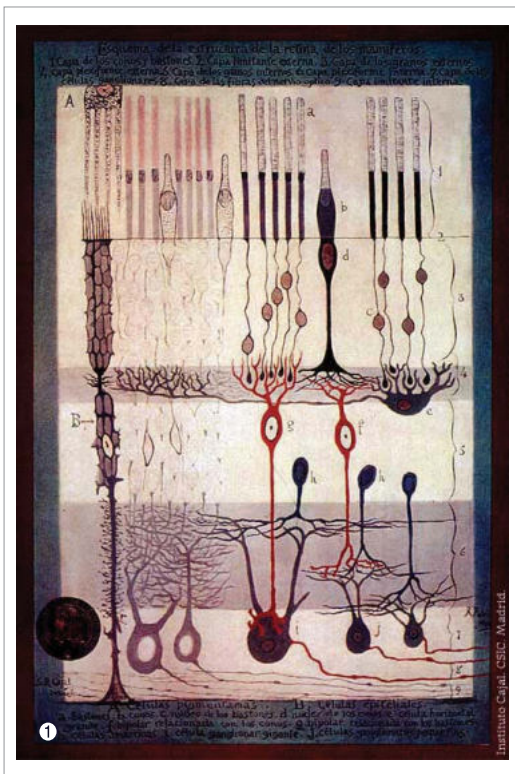
<우> GFP Bunny ©Eduardo Kac

카할의 신경세포 드로잉

근대 '뇌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페인 출신의 신경조직학자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Santiago Ramon y Cajal, 1852~1934)은 신경계에 관한 탁월한 연구와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 뉴런 간의 상호관계, 즉 '뉴런 이론'을 제창하며 신경과학(Neuroscience)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고, 1906년 카밀로 골지(Camillo Golgi)와 함께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카할은 현미경을 통해 미세적, 해부학적으로 관찰된 뇌의 조직학적 구조와 신경세포를 무려 3,000여 점에 달하는 그림으로 남겼는데, 카할은 신경세포의 구조와 성장을 나무의 생장에 비유하며 이를 '친밀한 연결(intimate relation)'이라고 명명했으며, 카할의 신경세포 그림들은 신경해부학 분야에서 전례없는 '예술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카할의 수많은 신경세포 그림이 수록된 역저 <인체 및 척추동물 신경계통의 조직학>(1904)은 출간 이후 꾸준히 개정·번역판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The Beautiful Brain: The Drawings of Ramon y Cajal>이라는 제목의 영문판 서적이 출간되었다.



카할은 신경세포의 구조와 성장을 나무의 생장에 비유하며 이를 '친밀한 연결(intimate relation)'이라고 명명했으며, 카할의 신경세포 그림들은 신경해부학 분야에서 전례없는 '예술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1. 카할의 신경세포 그림 1 ©public domain
2. 카할의 신경세포 그림 2 ©public domain
3. Neuro Mandala - Hommage to Cajal 181102 ©전인경
4. Neuro Mandala - Hommage to Cajal 181106 ©전인경

전인경의 뉴로 만다라

화가 전인경은 뇌과학자 카할의 신경세포 드로잉을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뉴로 만다라(Neuro Mandala)> 연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이다. <만다라>는 '본질의 것' 또는 '우주의 완전성'이라는 뜻의 불교·힌두교 미술 용어로서, 정신분석학자 융(Carl Jung)에 의해서 미술심리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전인경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한 후, 고(故) 만봉 스님(무형문화재 48호, 1910~2006)을 사사하여 불화와 단청을 학습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의 미적 세계관에서 <만다라>를 각별한 테마로 삼았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카할의 신경세포 드로잉과 <만다라>를 결합한 <Neuro Mandala - Hommage to Cajal> 연작을 통해 카할에 대한 '예술적 존경'을 표하며, 새로운 과학예술의 장을 열었다.

전인경 작가의 작품에 대해 <미학의 뇌(원제: The Aesthetic Brain: How We Evolved to Desire Beauty and Enjoy Art)>를 번역한 미술평론가 심희정은 "<뉴로 만다라>는 예술적 상상으로 그려진 신경 체계에 대한 어떤 상이다. 거대한 은하계나 자연 세계의 어떤 단면을 연상시키며, 신경체들이 이루어내는 화면은 우주의 기원, 생성과 소멸, 접촉과 변형을 연상시키며, 수많은 차원과 관계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인경 작가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신경 세포들의 활동을 상상합니다. 상상은 과학이나 예술에서 공통적인 사고입니다.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간 탐구의 일부분으로 시작한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통해 얻은 것은 카할이 말한 '정신 생명'입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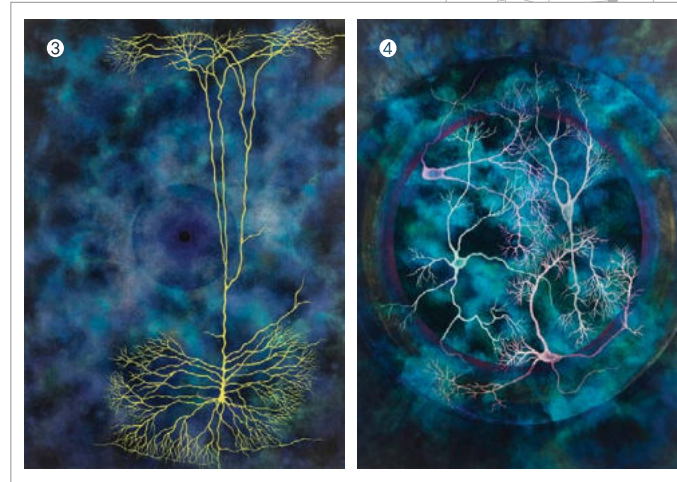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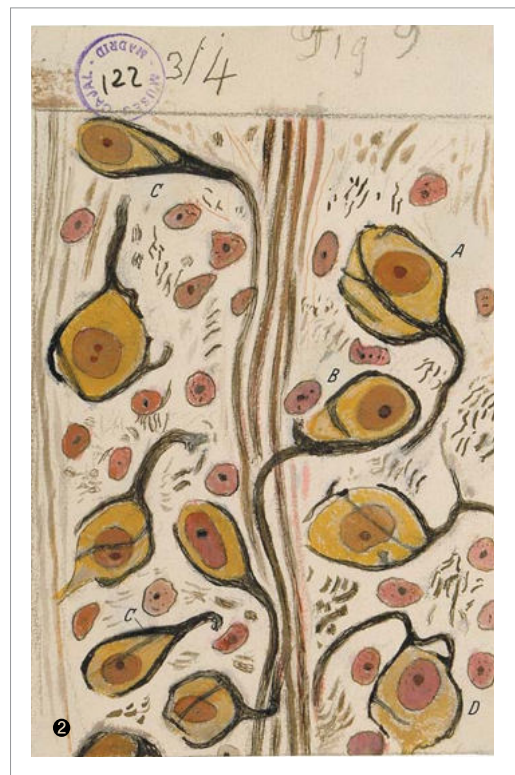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세계도 관계와 전달에 의해 일어나고, 인간사 또한 수많은 관계와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신경세포의 성장과 정지, 연결과 단절은 우주에 있는 무수한 별들의 생성과 소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신경과학과 조형언어를 융합한 전인경 작가의 과학예술에 대한 집념이 창조한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를 동시에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녀가 보여주는 미크론(1mm의 1/1,000) 단위의 전인미답의 세계는 실상 우주의 생성 원리와, 삼라만상의 근원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

글 — 전승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오토마타 공작소 대표감독으로 애니메이션과 오토마타, 그리고 과학융합 예술 분야에서 창작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신경 세포들의 활동을 상상합니다. 상상은 과학이나 예술에서 공통적인 사고입니다.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간 탐구의 일부분으로 시작한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통해 얻은 것은 카할이 말한 '정신 생명'입니다"



BIMONTHLY
FEED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새해에도 경기아트센터의 선물 같은 공연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나 연인,
또는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벤트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두툼한 옷을 여미고 찾아간 공연장엔 동장군은
온데간데없이 열기만이 가득합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녹인 활기찬 공연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young_sun.ph70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 #경기아트센터 #하이트 #베토벤 #도이치람머필하모닉

갑작스레 눈이 펄펄하고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파보 예브비와 도이치람머필하모닉이 펼치는
관현악의 향연에 몸을 녹이고 왔다.
예브비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치켜 올렸을 땐
폴스케일의 우리와 같은 음이 발산되는 것 같았다.
밝고 신나는 베토벤 8번 교향곡을 마지막으로 선사하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는 듯~!

irisflow13



엄마는 희망을 보았다.

후후-

♥ #랑데북 #늦은후기 #복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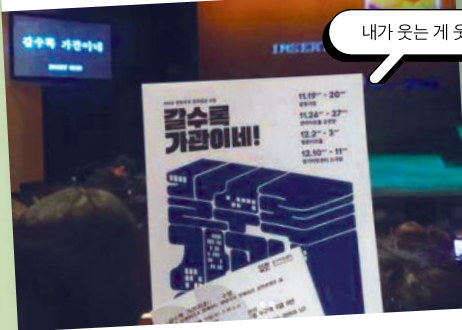
이동진 평론가님과 황인찬 작가님을 뵙고 싶은 마음 하나로
아이와 함께 토크콘서트 공연장으로 go go~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옛 노래와
다정한 황인찬 님이 읽어주는 시인 진은영 님의 시와
이동진 님이 갈무리해주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댓웬스>와
<헤어질 결심>이 함께한 밤.
무엇보다 나의 공주님이 훌륭한 공연메이트가 될 자질을 보게 된 밤^^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gif티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ucetescutsol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 #갈수록가관이네 #백수광부 #경기아트센터

많은 풍자적 요소를 담은 연극이었다.
프로의 세계는 저런 거구나 하며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봤던 좋은 작품.
유쾌하게 시작한 극이 극장에서 나올 때 즈음
답답함에 가슴을 치게 만들어서 그런지
무거운 메시지에 압도된 느낌적인 느낌!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작품!

super_mario_o_o



거미 님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 #경기아트센터 #거미20주년전국투어콘서트 #미친선곡

거미 2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육아하느라 고생한다며 몇 달 전 예매해준 내 사람~ 감사해요!
거미 님이 옆에 있는 듯한 제일 앞좌석이라 두근두근.
이번 공연은 선곡도 좋고 많은 곡을 불러주셔서 감동!
앙코르 무대에서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무반주로 '혼자만 하는 사랑' 불러주셔서 또 감동!!

joyjodiary



별 다섯 개 중 다섯!

문어 다리가
드레스 같아서 예뻐요~

♥ #해를낚은할아버지 #인형극 #경기아트센터

크리스마스 기념 어렵사리 티켓팅한 연극 <해를 낚은 할아버지>.
아이와 둘이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준비한 연극!
다행히도 꼬맹이가 설레어 하고 좋아해 주었다^^
이현이와 함께 관람한 공연 중
아름다운 조명 연출과 인상적인 음악이 돋보였던 연극.
예쁜 추억을 하나 더 쌓은 오늘
내일 진짜 크리스마스엔 뭐하지 ㅎㅎㅎㅎㅎㅎ

seni_m0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뤘어요~

♥ #멜로망스 #콘서트 #경기아트센터

내 생애 첫 콘서트! 무대 조명, 구성도 너무 이쁘고
음색도 좋았던 멜로망스 콘서트.
말도 재밌게 잘하고 찬양스런 춤도 너무 좋았다.
서울에서 분당까지 통근에 피든 올해 스물넷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가자.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보자구~!



GGAC
레퍼토리시즌
2023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

MAHLER SYMPHONY NO.6

말러 교향곡 6번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1번

B. Bartok, Violin Concerto No.1 Sz. 36, BB 48a

말러 교향곡 6번 a단조, '비극적'

G. Mahler, Symphony No.6 in a minor, 'Tragic'

GGAC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상시연 바이올린 앙상블 연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3.3.22수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3목 20:00 롯데콘서트홀

티켓 수월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서울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7세 이상 예매 수월 1544-2344 서울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문의 031-230-3324~5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경기도
GYEONGGI DO

GGAC NOW

경기아트센터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감사팀 문건한 무대기술팀 인수용

공연사업팀 정혜윤·경기도무용단 한지원

문화나눔·쉼터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찾아갑니다!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CALENDAR

2월·3월 주요 공연 일정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GGAC's

Genre

Boundary

※바로 지금 여기!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경기아트센터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감사팀 문건한 주임
무대기술팀 인수용 주임
공연사업팀 정혜윤 주임
경기도무용단 한지원 주임PD



열정과 패기, 준비된 마인드로
똘똘 뭉친 경기아트센터의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이들
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떨림이 가득한 이야기
를 들어볼까요.

글 편집부
사진 강권신

Q. 경기아트센터 입사를 축하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문건한 감사팀 문건한 주임입니다. MBTI는 INFJ로, 평소 사람 간의 관계와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수용 무대기술팀 인수용입니다. 무대 기계를 담당하며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윤 공연과 음악을 사랑하는 공연사업팀 정혜윤입니다. 경기아트센터의 상징과도 같은 <예술과 만남>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한지원 경기도무용단 한지원 PD입니다. 무용단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Q. 현재 맡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문건한 아트센터의 인권경영 시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문화 개선사업으로 폭력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조직문화 실태조사, 고충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용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스태프 회의에 참여해 공유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무대 기계 점검, 상하부에 관한 안전대책 강구, 유지보수를 통한 무대 기계 안정성 확보로 리허설과 공연 진행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윤 말 그대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공연의 콘셉트, 출연진 기획부터 간식 세팅까지 직접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올해부터는 컨벤션홀 대관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어요. 관객의 즐거움과 대관사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원 레퍼토리 시즌공연 진행을 보조하거나 초청공연 협의 및 진행과 무용단의 소셜미디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Q. 경기아트센터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문건한 미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은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미래에도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용 대학 시절, 신촌에서 토크 콘서트를 기획, 진행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공연 관련 일에 관심을 갖던 중 경기아트센터의 채용공고를 확인했고, 공연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윤 어릴 때부터 공연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곤 했어요. 저 또한 공연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선물하고 싶어 공연 기획자를 꿈꾸게 되었고, 관객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경기아트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원 무용공연기획사, 민간 발레단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늘 관심을 두던 경기무용단의 기획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할 기회가 있었고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채용공고가 나서 용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Q. 경기아트센터 직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문건한 공연을 관객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 기획자, 공연자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 한층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한지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술단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공연까지 챙겨 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공연을 어떤 형태로 기획하는지 궁금해서 다양한 공연장의 공연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경기아트센터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와 그 이유는?

한지원 **#퍼즐** 서로 다른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오케스트라처럼 각기 다른 개성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마치 퍼즐처럼 완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인수용 **#어울림** 문화예술이라는 하나의 접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시간과 기을이고, 또 준비된 작품을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엔 행복의 공간이며 어울림의 공간입니다.

문건한 **#자체공연** 경기아트센터는 시설대관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그 공연을 직접 무대에 선보이는 제작극장이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다채로움 #컬러풀** 말 그대로 다채롭고 컬러풀한 공연장이 아닐까요. 전용극장이 아니라 다목적홀이기 때문에 여러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고, 관객분들도 다양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아트센터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Q. 경기아트센터의 일원으로서 목표와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문건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공연이 예정되어 있을 때, 경기아트센터를 예매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관객에게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인수용 선배님들에게 잘 배우고, 공연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연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혜윤 업무적으로는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고, 천천히 내공을 쌓아 저만의 색깔을 담은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 좋은 분들과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지원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위치한 곳에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협업하며,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좌측부터 한지원, 문건한, 인수용, 정혜윤 주임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찾아갑니다!

2023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계획 및 출연단체 공모

경기아트센터는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경기도 구석구석 지역공동체로 찾아가 특화된 공연을 하는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지속해온 본 문화복지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23년 더욱 확대되는 문화복지 공연 계획과 함께 출연단체 공모 내용을 소개한다.



지역기반 문화예술인에게는 역량강화, 지역 공동체에는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경기아트센터가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문화복지 공연은 크게 세 분야로, 도내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직접 찾아가는 <문화나눔>, 경기도 내 근로자들에게 일과 중 문화휴식을 제공하는 <문화쉽터>,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기관과 협업하는 <문화피크닉>이 그것이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 속 문화 회복을 통한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경기도 내 각 지역의 특성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은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도 '거리'를 만들었다. 멀어진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도심 지역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도서관, 공원 등에서의 중·대규모 공연을, 농촌 지역에는 노인정, 학교, 복지기관 등 소규모 공연을 추진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내 우수예술단체에게 무대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출연단체를 공모, 10~15개 단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단체들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나눔>, <문화쉽터>, <문화피크닉> 등 연간 사업에 함께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2인 이상의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경기도 지역문화 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재의 단체(대표자 주소지 기준)로 제한한다. 공연물은 모든 장르에 대해 제한이 없으며, 경기도내 다양한 실내외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60분 분량이면 된다. 공연 활동 기간은 선발 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지원서 접수는 2월 1일부터 15일,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볼 수 있다. ▶



2023년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출연단체 공모

- **공모기간** : 2023. 2. 1(수) ~ 2. 15(수) 18:00
-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단체(기관)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가 경기도 내 시·군·이어야 함
 - 장르 제한은 없으며 다양한 실내외 공간에서 진행 가능한 60분 분량의 소규모 공연물
- **참여 제한사항**
 - 종교 활동 목적으로 참여하는 공연단체
 - 정기공연이나 단체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단체
 - 기관 설립 취지 또는 해당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연단체
- **신청방법** : 이메일(culture@ggac.or.kr)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공연계획서(단체 공연영상링크 포함), 공연단체 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공연사진
- **선발규모** : 10~15개 단체 예정
- **출연료** : 선정 후 별도 협의(100만원~300만원 상당)
- **심사기준** : 사업 적합도, 공연구성의 우수성, 사업운영역량, 관객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발표** : 2023. 2. 22(수)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문의** : 경기아트센터 문화나눔팀 031-230-3278, 3273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02+03
2023 Vol.160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신임사장 취임

경기아트센터 제10대 사장 서춘기 씨가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서 신임사장은 2012년 실내음향학 박사로 한양대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악 전용 홀 음향설계 표준안에 관한 연구 등을 한 바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며 예술단 운영본부장 등을 지냈다.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 전문 컨설턴트 경력도 갖고 있다. 한양대 건축공학부 연구부교수로 재직 중 공모에 지원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서 신임사장은 '국내 문화예술 최고 위상의 공연장 및 예술단 운영'이라는 비전 하에 ▲예술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예술생태계 조성, ▲인력과 조직의 혁신, ▲문화예술 생태계 및 교육기반 조성, ▲MZ세대와 함께하는 발전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공연도 영화·드라마처럼 OTT에서 만난다! 경기아트센터 웨이브(Wavve)에 공연영상 배급

국내 OTT(Over The Top- 온라인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에서 경기아트센터가 제작한 공연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자체 기획공연 및 도내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무대를 촬영하고, 고품질 4K영상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연간 진행하고 있다. 자체 기획 콘텐츠로는 경기도무용단의 <경함(2021)>, <순수 - 더 클래식 (2022)>, 댄스필름 <상태가 형태(2021)>, <경기클래식페스티벌(2022)>이 있으며, 경기도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인 군포포라임필하모닉의 <쿨썸머 클래식(2022)>, '예술무대 산'의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2022)> 등 총 6개 콘텐츠를 웨이브에서 제공한다. 모든 콘텐츠는 전문 영상 장비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촬영 및 제작했으며, 무대 위 아티스트의 표정과 몸짓을 더욱 실감나게 담아냈다. 시청자들은 마치 눈앞에서 무대가 펼쳐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OTT 배급을 계기로 공연 예술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웨이브'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플랫폼에서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 경기아트센터·국립정동극장 공동기획, 연극 <태양> 오는 2월 26일까지

경기아트센터와 국립정동극장이 공동기획한 연극 <태양>이 오는 2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한다. <태양>은 마에카와 토모히로 작가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바이러스로 나누어진 두 갈래의 인류를 통해 위계와 차별, 이상과 현실 등을 그리며 공존의 시대, 갈등이 드리운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춘다. 작품은 지난 2021년 두산아트센터에서 초연되어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극단 단원들과 더불어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 중인 신재범 등이 무대에 올라 신선한 연기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극단 김정 상임연출은 "이번 무대에서는 두 인류의 양극화에 더욱 집중하려 한다. 또렷하게 구분된 두 집단의 경계선상에 있는 관객분들과 의문과 질문이 오가며 실재 없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재연의 소감을 전했다. 티켓가격은 전석 5만 원이며, 예매는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www.jeongdong.or.kr)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경기아트센터로 나들이 오세요, '신년음악회' 외 뮤지컬·콘서트 소식 풍성

23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신년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2월 4일에는 <2023년 신년음악회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토끼판'>을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인간세상에 내려온 달나라 복토끼들의 음악잔치'를 테마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이희문, 동양고주파 등 현재 국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이 세련되고 흥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화려한 뮤지컬, 콘서트 무대도 준비되어있다. 11일~12일 이틀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세계적인 뮤지컬 거장 작사가 팀 라이스와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 콤비가 청년 시절 선보인 작품으로, 50주년을 맞아 7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오른다. 18일~19일에는 <정동원 :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다. 트로트 신동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정동원은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밴드의 화려한 연주를 비롯해 댄스, 뮤지컬,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3월에도 즐거운 무대는 계속된다. 17일~19일, 쇼뮤지컬의 대명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송일국, 이종혁, 전수경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경기아트센터를 찾는다. 신나는 탭댄스 리듬 가득한 무대로 관객들을 뒤흔치게 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봄, 경기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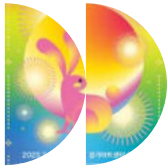


경기아트센터, 도내 예술인들과 함께 웹드라마 '나의 (버스) 해방일지' 제작

경기아트센터는 뮤지컬 배우, 연기자 등 도내 예술인들과 함께 '경기도 심야버스'를 주제로 하는 웹드라마 '나의 (버스) 해방일지'를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웹드라마는 경기도민의 주거, 교통 문제 등을 다뤄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으로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웹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대사로 구성된다. 배우들은 뮤지컬 드라마 형식으로 심야버스 탑승 전후 주인공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늦은 밤 버스를 타기 위해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나본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드라마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는 총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깍!tv'(www.youtube.com/iloveggac)에서 전 에피소드를 감상할 수 있다.



2 FEB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경기아트센터- 국립정동극장 연극 <태양> 화-금 19:30~21:30 토 14:00~16:00 / 18:00~20:00 일 14:00~16:00 국립정동극장 문의 ☎ 02-751-1500	2023년 신년음악회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토끼판'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5	6	7	8	9	10	11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14:00 / 18: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6551
12	13	14	15	16	17	18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14:00/18: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6551					정동원 콘서트 <음악화-음악회>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1555	
19	20	21	22	23	24	25
정동원 콘서트 <음악화-음악회>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1555						
26	27	27	28			
						

기획공연☎ 031-230-3440 경기도극단☎ 031-230-3302~4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경기도무용단☎ 031-230-3311~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31-230-3321~5

3 M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MODAFE 베스트 컬렉션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4:00 /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19	20	21	22	23	24	25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러 교향곡 6번>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4~51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러 교향곡 6번> 20:00 롯데콘서트홀 문의 ☎ 031-230-3324~51		어린이뮤지컬 <캐치 티니핑> 11:00 / 14:00 / 16:30 (1일 3회 공연)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688-6675
26	27	28	29	30	31	
어린이뮤지컬 <캐치 티니핑> 11:00 / 14:00 / 16:30 (1일 3회 공연)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688-6675				밤베르크 심포니 내한공연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예술과만남>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아티스트, 숨은 이야기, 국내외 문화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각 채널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아트센터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ggac_official

경기아트센터

예술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linktr.ee/ggac
16488 Suwon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인계동)

@ggac_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다양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facebook

경기아트센터

5시간 ·

2023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한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이
더 큰 도약을 위해 알찬 품격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공연정보
<봄 여름 시즌>... 더 보기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예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LK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친구 848

경기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술과만남> 02+03월호 발간!

홈소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의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조화수 16회 2023.1.19.

[GGAC ORIGINAL x JINJO].
진조크루가 표현하는 예술의
'New Stage'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보기

YouTube. 짹!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YouTube Channel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등 짹!
tv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실시간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m.post.naver.com/ggarts

지면과 SNS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글말과 사진, 포스트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봄여름 시즌 티켓 오픈
2022.12.22 목 11시

예매 경기아트센터 www.ggac.or.kr
인터파크티켓 ticket.interpark.com

